

연구논문

6·10만세운동 전개 과정에 대한 재검토

김경준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연구원, 한국사 전공

hansan@i815.or.kr

국문초록

2026년은 6·10만세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3·1혁명, 광주학생항일운동과 더불어 일제강점기 3대 항일운동으로 불리는 6·10만세운동에 대해서는 그 위상만큼이나 이미 많은 연구가 진행됐다. 특히 6·10만세운동을 주도했던 이들의 실체, 계획과 전개 과정 등에 대해 다른 연구 성과도 상당히 축적돼 있다. 그러나 6월 10일 당일 서울에서 전개된 만세 시위 과정만 하더라도 당대 언론 보도를 비롯하여 만세운동 참가자들이 남긴 증언, 일제가 남긴 공식 기록들마다 상충하는 부분이 많아 명확하게 정리하기 어려운 점이 존재한다. 기록마다 시간과 인원, 장소 등이 제각각인 탓에, 연구자들마다 조금씩 서술이 다른 것이다. 그러므로 6·10만세운동의 전개 과정을 온전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일제의 의도적 은폐와 언론의 오보, 참가자들의 잘못된 기억이라는 3중의 장애물을 극복해야만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6·10만세운동의 전개 과정을 실증적으로 비교 분석하는 작업은 미진했다. 이에 본 논문은 선행 연구들의 전개 과정 분석에 대한 비교 검토와 사료들에 대한 재검토를 거쳐 6월 10일 서울 지역 만세 시위의 전개 과정을 최대한 조밀하게 재구성해 보고자 했다. 그 결과 13차[관수교-장사동 247번지(혹은 8번지)-단성사 앞-황금정 3정목-경성사범학교-훈련원 부근-단성사 부근-훈련원 재전 부근-오간수교-동대문부인병원-창신동 채석장-신설리 서울고무공사 앞-동묘 부근]에 이르는 시위 과정으로 새롭게 구성할 수 있었다. 그러나 사료의 한계 등으로 여전히 밝히지 못한 부분들도 존재한다. 이는 6·10만세운동 연구가 아직도 나아가야 할 길이 멀었다는 사실을 절감케 한다. 6·10만세운동 100주년을 맞아 본 논문이 그러한 문제 의식을 환기하고 연구를 촉진하는 마중물 역할로 작용하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6·10만세운동, 조선공산당, 조선학생과학연구회, 고려공산청년회, 순종

투고일 2026. 7. 6. 심사일 2026. 8. 3. 게재 확정일 2026. 8. 27.

Research Paper

A Re-examination of the Unfolding Process of the June 10th Independence Movement

Kim, Kyungjun

Researcher, Department of Historical Materials, The Independence Hall of Korea
hansan@i815.or.kr

Abstract

The year 2026 marks the centenary of the June 10th Independence Movement. Alongside the March 1st Revolution and the Gwangju Student Independence Movement, the Movement is recognized as one of the three major anti-Japanese resistance movements of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A considerable body of research already exists, in particular, that dealing with the reality, plans, and development processes of those who led the Movement. However, until now, empirical comparison and analysis of the development process of the Movement has been insufficient. Therefore, after comparing previous studies and reviewing the historical records, the present study attempted to reconstruct the development process of the Independence Movement in Seoul on June 10th as closely as possible. As a result, the 13th protest process could be reorganized. However, due to the limitations of feed, there are still some unknowns. This makes me feel that the study of the June 10th Independence Movement still has a long way to go. I hope this paper will raise this awareness of the problem and help promote the study.

Keywords: June 10th independence movement, Korean communist party, Chosen student society for science study, Korean communist youth league, Emperor Sunjong

Received July 6, 2026 Reviewed August 3, 2026 Accepted August 27, 2026

I. 머리말

올해는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였던 순종(융희제)의 승하를 계기로 일제에 항거하기 위해 일어났던 6·10만세운동 100주년을 맞는 해이다. 3·1혁명, 광주학생 항일운동과 더불어 일제강점기 3대 항일운동으로 불리는 6·10만세운동에 대해서는 그 위상만큼이나 이미 많은 연구가 진행됐다.¹

그러나 6월 10일 당일 서울에서 전개된 만세 시위 과정만 하더라도 연구자들마다 조금씩 서술이 다르다. 이는 기록마다 시간, 인원, 장소 등이 제각각이기에 연구자들이 사료를 선별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차이라 할 것이다. 기록의 충돌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우선 일제 당국의 공식 발표와 언론 보도들이 일치하지 않는다. 당시 보도들을 보면 서울 지역 곳곳에서 산발적인 시위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보이지만, 일제 당국은 의도적으로 규모를 축소하거나 감추고자 했던 것 같다. 만세운동 당일 조선총독부 경무국장이

※ 본 논문은 2026년 6월 5일 (사)6·10만세운동기념사업회와 광복회의 공동 주최로 열린 ‘6·10만세운동 100주년 기념 국제학술심포지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완한 것이다. 본 논문의 완성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신 한양대학교 박찬승 선생님, 충남대학교 박경목 선생님, 한국외국어대학교 최은진 선생님, 독립기념관 최우석 선생님께 특별히 감사드린다.

1 2009년에 나온 장석홍의 연구가 대표적이다[장석홍, 『6·10만세운동』(천안: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장석홍은 6·10만세운동의 배경과 계획, 전개과정 등을 규명했다. 이후 6·10만세운동에 관한 연구는 그동안 주요 추진세력에 가려져 그 활동이 밝혀지지 않았던 고려공산동맹에 주목한 연구[전명혁, 「6·10만세운동 시기 조선공산당과 고려공산동맹의 활동」, 『역사학연구』 58(2015)], 6·10만세운동을 기획했던 권오설의 구상에 주목한 연구[이희을, 「권오설의 민족혁명운동론 수용과정과 민족해방운동 전술」, 『韓國政治外交史論叢』 44-2(2023)], 해외 언론에 비취진 6·10만세운동에 대한 연구[김국화, 「혁명적 동방에 나타난 6·10만세운동 기사 연구」, 『한국독립운동사연구』 88(2024)], 6·10만세운동과 관련하여 일어난 맹휴에 관한 연구[최은진, 「6·10만세운동 관련 중등학교 학생들의 동맹휴학」, 『한국근현대사연구』 107(2023)], 6·10만세운동 당시 참여한 전문학교들에 대한 연구[정혜정, 「1920년대 천도교 박인호와 보성전문학교」, 『韓國教育史學』 46-4(2024); 홍성표, 「연희전문학교 학생들의 6·10만세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89(2025)] 등으로 세분화되어 진행되고 있다. 최근에 나온 연구 중 6·10만세운동과 관련하여 아직 발굴 및 분석되지 않은 경찰·검사·법원 기록을 소개한 최은진의 연구[「6·10만세운동 관련 자료의 현황과 활용: 경찰·검사·법원 자료를 중심으로」, 『사학연구』 152(2023)]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해당 연구에서 소개한 자료들이 공개, 분석된다면 6·10만세운동의 실체를 보다 꼼꼼하게 조망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내각 서기관장에게 보낸 전문(電文)을 보면 “일반적으로 민심은 평온한데 신문에서 과대 또는 날조의 기사를 게재할지 헤아리기 어렵다”고 하고 있다. 같은 날 밤에 발송한 전문에서는 “여러 유언비어가 있지만 보고한 것 이외의 일은 전연 사실무근이며 장례는 사고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여 6·10만세운동 당시 학생들이 전개했던 격문 살포 및 만세 시위 사실들을 부정하고 있다.²

그러나 실제로는 상당히 많은 부상자가 발생하는 등 현장 상황은 매우 혼란스러웠던 것으로 보인다.³ 문제는 언론 보도 역시 기사마다 그 내용이 제각각이며 만세운동 참가자들의 회고도 일제 기록 및 언론 보도와 상충한다. 그러므로 일제의 의도적 은폐와 언론의 오보, 참가자들의 잘못된 기억이라는 3중의 장애물 앞에서 전개 과정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⁴

그럼에도 6·10만세운동의 전개 과정을 실증적으로 비교 분석하는 작업은 그간 다소 미진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본고는 선행 연구의 전개 과정 분석을 비교 검토하고, 기존 연구들이 참고한 사료들뿐만 아니라 선행 연구들이 주목하지 않았던 사료들까지도 폭넓게 분석하여 6월 10일 서울 지역에서 일어난 만세 시위 전개 과정을 최대한 정치하게 재구성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6·10만세운동의 실체를 밝히고 그 위상을 재조명하는 것이 목표이다.

II. 선행 연구 비교 검토

II 장에서는 우선 선행 연구들이 6월 10일 서울 지역 만세 시위 전개 과정을 어떻게 정리했는지 비교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기존 연구자들이 무엇을 근거로

2 「国葬当日ニ於ケル動靜」(1926.6.10), 『故大勲位李王國葬書類 卷五止』.

3 「鐵桶가튼警戒中에 沿道學生 萬歲高唱」, 《시대일보》, 1926년 6월 11일.

4 만세 시위가 전개된 장소에 대해 박래원의 경우 1950년 회고에서는 7곳으로, 1976년 회고에서는 8곳(단성사 앞 관수교, 황금정 3정목, 황금정 4정목, 훈련원, 동묘, 청량리 등)으로 기억하고 있다. 이지탁은 7곳(단성사, 관수교, 사범교, 훈련원, 창신동, 신설동, 동묘)으로 회고했는데 언론 공식 발표와도 차이가 있다. 박래원, 「육십향일회고」, 《서울신문》, 1950년 6월 11일; 상수 중법사(박래원), 「육십만세운동회상」, 《신인간》 337(1976); 이지탁, 「獨立運動과 學生」, 《조선일보》, 1960년 6월 12일.

전개 과정을 정리했는지, 차이점은 무엇인지, 연구별로 누락된 점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함이다.

표1-이현희(1969)⁵

No.	시간	장소	참가자	내용
1차 시위	08:30	종로3가 단성사	중앙고보	인산 행렬이 단성사 앞 동양루 전편 연도를 통과할 무렵 이선호의 선창으로 중앙고보생 40여 명이 격문 살포 및 만세 고창
2차 시위	08:40	관수교 부근	보성전문	대여가 관수교를 지난 뒤 영친왕과 의친왕이 탄 마차가 거의 다 통과할 무렵, 행렬 동편 입정정(笠井町)에 도열하고 있던 보성전문생 수십 명이 격문 살포 및 만세 고창. 그 옆에 있던 연희전문생 50여 명이 이병립과 박하균 등의 선창으로 격문 살포 및 만세 고창
			연희전문	
3차 시위	미상	장사동 247번지	세브란스의전	세브란스의전생 다수가 격문 살포 및 만세 고창
4차 시위	09:30	도립사범학교	박두중 외 2	박두중 외 2명, 격문 살포 및 만세 고창
5차 시위	13:00	훈련원 부근	학생 1	학생 1명, 태극기 흔들며 만세 고창
6차 시위	13:10	동대문부인병원	김낙환 외 2	동대문부인병원 입구에서 《시대일보》 배달부 김낙환 외 2명의 청년이 호각 불며 만세 삼창
7차 시위	13:30	창신동 채석장 입구(동묘 부근)	홍종현	만세 고창
8차 시위	13:50	신설동	학생 1	학생 1명이 격문 살포 및 만세 고창
9차 시위	14:20	동묘 부근	통동계 4	박용규, 이동환, 광대형, 황정환 등 4명이 격문 살포 및 만세 고창

※ 총 참가인원: 미상
 ※ 만세현장 체포인원: 210여 명(연희전문 43, 중앙고보 58, 세브란스의전 8, 보성전문 7, 양정고보 2, 배재고보 1, 송도고보 1, 기타 청년 수십 명)

5 이현희, 「6·10 獨立萬歲運動放」, 『6·10독립만세운동: 제65주년 기념 자료집』(6·10만세 기념사업회, 1991), 52~57쪽; 대검찰청 소장 『형사재판원본』 제1책 3(1927. 4); 《동아일보》; 『기러수필』; 『고려대학교 60년誌』; 이현희, 「6·10萬歲抗日鬭爭祕話」, 『最高會議報』 21(1963) 등을 참조하여 정리.

표2-정세현(1979)⁶

No.	시간	장소	참가자	내용
1차 시위	08:25	관수교 부근	연희전문	연희전문 학생 50여 명이 격문 살포 및 만세 고창. 보성전문학교 학생들과 민중의 호응
			보성전문	
			민중	
2차 시위	08:30	단성사	중앙고보	종로 3정목에 있는 단성사 앞으로 대여가 지나갈 때 이선희의 선창과 중앙고보생 30~40명의 호응으로 격문 살포 및 만세 고창
3차 시위	09:00	경성사범학교	박두중 외 청년 2	박두중 외 청년 2명이 격문 살포 및 만세 고창
4차 시위	13:00	훈련원 재전 부근	학생 1	학생 1명이 격문 살포 및 만세 고창
5차 시위	13:15	동대문부인병원	김낙환 외 2	동대문부인병원 앞에서 《시대일보》배달부 김낙환 외 2명의 청년이 격문 살포 및 만세 고창
6차 시위	13:15	창신동 채석장 입구	50세 남성	50세 정도의 남자가 격문 살포 및 만세 고창
7차 시위	13:45	신설리 고무회사 앞	미상	대여가 지나갈 때 격문 살포
8차 시위	14:10	동묘 앞	통동계 4	박용규, 황정환, 이동환, 광재형 ⁷ 등이 격문 살포 및 만세 고창

※ 총 참가인원: 미상

※ 만세현장 체포인원: 210여 명(연희전문 42, 중앙고보 58, 세브란스의전 8, 보성전문 7, 양정고보 2, 배재고보 1, 송도고보 1, 기타 청년 수십 명)

표3-김호일(1990)⁸

No.	시간	장소	참가자	내용
1차 시위	08:30	종로3가 단성사	중앙고보	대여가 단성사 앞을 지날 때 중앙고보생 30~40명이 이선희의 선창으로 격문 살포 및 만세 고창. 근처 도열 민중 호응
			일반 민중	
2차 시위	08:45	관수교 부근	연희전문	연희전문학생 50여 명이 만세 고창과 격문 살포. 보성전문학교 동조. 일반민중 가세. 현장에서 주동학생 이병립, 이천진, 박학균 ⁹ 등 피체
			보성전문	
			민중	

6 정세현, 「6·10萬歲運動」, 『韓國近代史論 II』(서울: 지식산업사, 1979), 429~433쪽; 주로 《조선일보》, 《동아일보》, 《開闢》 등을 참조하여 정리.

7 광재형의 오기이다.

8 김호일, 「日帝下 ‘6·10學生運動’ 考」, 『尹炳奭教授華甲紀念 韓國近代史論叢』(서울: 지식산업사, 1990), 605~607쪽; 주로 사건 직후 보도된 《동아일보》 기사들을 참조해서 정리했으며 1964년 4월 26일 자 《조선일보》에 실린 박래원의 회고담도 참조.

9 박학균의 오기로 보인다.

No.	시간	장소	참가자	내용
3차 시위	09:30	경성사범학교 부근	YMCA	YMCA생 박두중 외 2명, 격문 살포 및 만세 고창
4차 시위	13:00	훈련원 부근	학생 1	학생 1명, 격문 살포 및 만세 고창
5차 시위	13:30	동대문 부근	김낙환 외 2	《시대일보》김낙환 외 청년 2명, 격문 살포 및 만세 고창
6차 시위	14:00	신설동 부근	학생 1	격문 살포 및 만세 고창
7차 시위	14:20	동묘 부근	통동계 4	중앙고보생 박용철, ¹⁰⁾ 이동환, 중등학교생 곽대형, 황정환 등 격문 살포 및 만세 고창

※ 총 참가인원: 미상

※ 만세현장 체포인원: 210여 명(연희전문 42, 중앙고보 58, 세브란스의전 8, 보성고보 7, 양정고보 2, 배재고보 1, 숭도고보 1, 기타 청년 수십 명)

표4-황묘회(1994 · 1996)¹¹⁾

No.	시간	장소	참가자	내용
1차 시위	08:30	종로3가 동양루	중앙고보	중앙고보생 이선호 선창으로 동교생 30~40여 명이 격문 살포 및 만세 고창. 근처 관중 동조
			민중	
2차 시위	08:40	관수교	보성전문	대여가 관수교를 지나며 영친왕, 의친왕이 탄 마차가 통과할 무렵 행렬 동편에 도열하고 있던 보성전문학교 학생 수십 명이 격문 살포 및 만세 고창. 부근 도열 전문학교 학생 50여 명이 연희전문 이병립, 박하균 선창으로 격문 살포 및 만세 고창. 민중 호응
			연희전문	
			민중	
3차 시위	미상	장사동 247번지	세브란스의전	세브란스의전 학생들이 격문 살포 및 만세 고창
4차 시위	09:30	도립사범학교	박두중 외 청년 2	대여 행렬이 도립사범학교 앞을 통과하자 앞에 도열해 있던 박두중과 청년 2명이 격문 살포 및 만세 고창
5차 시위	13:00	훈련원 부근	학생 1명	훈련원 재전 부근에서 학생 1명이 태극기 흔들면서 만세 고창
6차 시위	13:10	동대문부인병원	《시대일보》배달부 외 청년 2	《시대일보》배달부 외 청년 2명이 격문 살포 및 만세 고창
7차 시위	13:30	창신동 채석장 입구	홍종현	50세가량 된 홍종현이 만세 고창

10 박용규의 오기로 보인다.

11 황묘회, 「6·10 獨立萬世運動의 展開와 그에 나타난 民族主義 精神研究」, 『한국민족운동사연구』 9(1994), 137~140쪽; 황묘회, 「6·10萬歲運動의 民族史的 位相」, 『한국민족운동사연구』 14(1996), 47~50쪽; 주로 사건 직후 보도된 《동아일보》 기사들과 『기려수필』 등을 참조한 것으로 확인.

No.	시간	장소	참가자	내용
8차 시위	13:45	고양군 신철리	학생 1	대여가 고무회사 앞을 지나갈 때 학생 1명이 격문 살포
9차 시위	14:20	동묘 앞	통동계 4	중앙고보생 박용규, 이동환, 황정환 및 중등학교 객대형 등이 관수교 부근에서 살포한 것과 같은 격문 살포 및 만세 고창

표5-장석홍(2009)¹²

No.	시간	장소	참가자	내용
1차 시위	08:30	종로3가 단성사	중앙고보	단성사 앞에서 동양루 앞에 도열해 있던 중앙고보 이선호의 선창으로 중앙고보생 30~40명이 격문과 태극기 살포하며 만세 고창. 연희전문학교 학생 호응
			연희전문	
2차 시위	08:40	관수교	연희전문	연희전문학생 50여 명이 격문 살포 후 만세 고창, 관수교 남쪽 부근에서는 이병립과 연희전문 박하균·이천진이 앞장서 격문 살포 후 만세를 부르자 학생들이 호응
3차 시위	09:30	경성사범학교	청년학원	청년학원 생도 박두중 외 2명의 청년이 경성사범학교 앞에서 격문을 살포하며 만세 고창
4차 시위	13:00	훈련원 일대	학생 1	훈련원 재전 부근에서 학생 1명이 태극기 흔들면서 만세 고창
			천세봉	훈련원 서쪽 일대에서 천세봉 선창으로 만세 시위
5차 시위	13:10	동대문부인병원	김낙환 등 2명	동대문부인병원 앞에서 대여가 지나간 후 《시대일보》 김낙환 외 2명이 격문 살포 후 만세 고창
6차 시위	미상	창신동 채석장 입구	50세가량의 사람	50세가량의 사람이 만세 고창
			홍종현	홍종현(37세)이 혈서 쓰고 투쟁
7차 시위	13:45	신설동 고무회사	학생 1	대여가 신설동 고무회사를 지나갈 때 학생 1명이 격문 살포
8차 시위	14:20	동대문 밖 동묘 앞	통동계 4	박용규·객대형·황정환·이동환이 관수교 부근에서 살포한 것과 같은 격문 살포

※ 총 500~600여 명 학생 참가

※ 만세현장 체포인원: 210여 명(연희전문 42, 중앙고보 58, 세브란스의전 8, 보성고보 7, 기타 중등학교, 양정고보, 배재고보, 송도고보 학생들)

12 장석홍, 앞의 책(2009), 217~219쪽.

표6-최은진(2024)¹³

No.	시간	장소	참가자	내용
1차 시위	08:30	종로3가 단성사	중앙고보	단성사 앞에서 중앙고보 학생 30~40명이 격문 살포 및 만세 고창
2차 시위	08:45	관수교	연희전문	연희전문학생 50여 명이 격문 살포 및 만세 고창. 부근 도열 시외 전문학교 학생 호응
			시외 전문학교	
3차 시위	미상	장사동 부근	세브란스의전	대여가 장사동에 이르자 세브란스의전 학생들이 격문 살포
4차 시위	09:20	황금정 독립사범학교	학생들	학생들이 격문 살포 후 만세 고창
5차 시위	09:30	경성사범학교	청년학관 학생 1명 및 청년2명	청년학관 학생 1명과 청년 2명이 경성사범학교 앞에서 격문 살포 및 만세 고창
6차 시위	13:00	훈원 부근	학생 1명	훈원 재전 부근에서 학생 1명이 태극기 흔들면서 만세 고창
7차 시위	13:10	동대문부인병원	《시대일보》배달부 외 청년 2명	《시대일보》배달부 외 청년 2명이 격문 살포 및 만세 고창
8차 시위	14:20	동묘 앞	중등학교	중등학교 2명, 휘문고보 1명, 중앙고보 1명이 격문 살포 및 만세 고창
			휘문고보	
			중앙고보	

표7-박현(2026)¹⁴

No.	시간	장소	참가자	내용
1차 시위	08:30	동양루 앞	중앙고보	국장 행렬이 단성사를 지나자 만세 고창 및 격문 살포
			연희전문	
2차 시위	08:30	장사동 8번지 앞	세브란스의전	만세 고창 및 격문 살포
3차 시위	08:45	관수교	연희전문	연희전문 학생 50명이 만세 고창 및 격문 살포
4차 시위	09:20	황금정 3정목	연희전문	연희전문 학생들이 격문 살포 및 숙명여학교 학생들이 만세 고창
			숙명여학교	

13 최은진, 「순종 사망과 장례과정」, 『한국독립운동사연구』 87(2024), 203~204쪽; 주로 사건 직후 보도된 《동아일보》, 《시대일보》 기사를 토대로 정리.

14 박현, 「6·10만세운동을 통해 본 경성의 시위 공간 분석」, 『한국독립운동사연구』 94(2026), 131~132쪽; 2009년 출간된 장석홍의 『6·10만세운동』과 《동아일보》, 《시대일보》 기사를 토대로 정리.

No.	시간	장소	참가자	내용
5차 시위	09:30	경성사범학교 부근	청년학관 박두중 외 2명	격문 살포
6차 시위	13:00	훈련원 재전 부근	학생 1명 천세봉	학생 1명이 태극기 흔들면서 만세 고창. 훈련원 서쪽 일대에서 천세봉 선창으로 만세 시위
7차 시위	13:10	동대문부인병원 안	《시대일보》 배달부 외 2명	대여가 지나간 후 김낙한 외 2명 만세 고창 및 격문 살포
8차 시위	13:45	고무회사 앞	학생 1명	어떤 학생이 격문 100여 장 살포
9차 시위	14:20	동묘 앞	박용규, 광재형, 황정환, 이동환	박용규·광재형(중등학교), ¹⁵ 황정환(휘문고보), 이동환(중앙고보)이 관수교 부근에서 배포된 것과 같은 격문 약 700장 살포
10차 시위	미상	황금정 4정목	연희전문 외	연희전문 외 다수 격문 살포
11차 시위	미상	고학당	학생 1명	만세 고창 및 격문 살포
12차 시위	미상	장사동 247번지	세브란스의전	격문 살포
13차 시위	미상	창신동 채석장 입구	50세가량 노인 홍종현	50세가량 노인 1명이 만세 고창. 홍종현이 혈서 쓰고 투쟁 참가

아래 <표8>은 위에서 정리한 이현희, 정세현, 김호일, 황묘희, 장석홍, 최은진, 박현의 분석 결과를 비교하기 쉽게 하나의 표로 정리한 것이다.

표8-선행 연구의 전개 과정 비교

연구자	차수	전개 과정	체포인원
이현희	9	① 단성사(중앙고보) → ② 관수교(보성전문·연희전문) → ③ 장사동 247번지(세브란스의전) → ④ 독립사범학교(박두중 외 청년 2) → ⑤ 훈련원(학생 1) → ⑥ 동대문부인병원(김낙한 외 청년 2) → ⑦ 채석장(홍종현) → ⑧ 신설동(학생 1) → ⑨ 동묘(통동계 4)	※ 만세현장 체포인원: 210여 명 (연희전문 43, 중앙고보 58, 세브란스의전 8, 보성전문 7, 양정고보 2, 배재고보 1, 송도고보 1, 기타 청년 수십 명)
정세현	8	① 관수교(연희전문·보성전문·민중) → ② 단성사(중앙고보) → ③ 경성사범학교(박두중 외 청년 2) → ④ 훈련원(학생 1) → ⑤ 동대문부인병원(김낙한 외 청년 2명) → ⑥ 창신동 채석장(50세 남자) → ⑦ 신설리 고무회사(미상) → ⑧ 동묘 앞(통동계 4)	※ 만세현장 체포인원: 210여 명 (연희전문 42, 중앙고보 58, 세브란스의전 8, 보성전문 7, 양정고보 2, 배재고보 1, 송도고보 1, 기타 청년 수십 명)

15 광재형의 오기이다.

연구자	차수	전개 과정	체포인원
김호일	7	① 단성사(중앙고보·민중)→② 관수교(연희전문·보성전문·민중)→③ 경성사범학교(박두중 외 2명)→④ 훈련원(학생 1)→⑤ 동대문(김낙환 외 청년 2)→⑥ 신설동(학생 1)→⑦ 동묘(통동계 4)	※ 만세현장 체포인원: 210여 명 (연희전문 42, 중앙고보 58, 세브란스의전 8, 보성고보 7, 양정고보 2, 배재고보 1, 송도고보 1, 기타 청년 수십 명)
황묘희	9	① 단성사(중앙고보·민중)→② 관수교(보성전문·연희전문·민중)→③ 장사동 247번지(세브란스의전)→④ 도립사범학교(박두중 외 청년 2)→⑤ 훈련원(학생 1)→⑥ 동대문부인병원(김낙환 외 2)→⑦ 창신동 채석장(홍종현)→⑧ 신설리 고무회사(학생 1)→⑨ 동묘 앞(통동계 4)	
장석흥	8	① 단성사(중앙고보·연희전문)→② 관수교(연희전문)→③ 경성사범학교(박두중 외 2)→④ 훈련원(학생·천세봉)→⑤ 동대문부인병원(김낙환 등 2명)→⑥ 채석장(50세가량 사람·홍종현)→⑦ 고무회사(학생 1)→⑧ 동묘 앞(통동계 4)	※ 총 500~600여 명 학생 참가 ※ 만세현장 체포인원: 210여 명 (연희전문 42, 중앙고보 58, 세브란스의전 8, 보성고보 7, 기타 중등학교, 양정고보, 배재고보, 송도고보 학생들)
최은진 ¹⁶⁾	8	① 단성사(중앙고보)→② 관수교(연희전문·시외전문학교)→③ 장사동 부근(세브란스의전)→④ 도립사범학교(학생들)→⑤ 경성사범학교(청년학관 학생 1·청년 2)→⑥ 훈련원(학생 1)→⑦ 동대문부인병원(《시대일보》 배달부 외 청년 2)→⑧ 동묘 앞(통동계 4)	
박현	13	① 동양루(중앙고보·연희전문)→② 장사동 8번지(세브란스의전)→③ 관수교(연희전문)→④ 황금정 3정목(연희전문·숙명)→⑤ 경성사범학교(박두중 외 2명)→⑥ 훈련원(학생 1)→⑦ 동대문부인병원(김낙환 외 2명)→⑧ 고무회사(학생 1)→⑨ 동묘 앞(박용규·곽대형·황정환·이동환) [시간 미상] ⑩ 황금정 4정목(연희전문 외 다수) ⑪ 고학당(학생) ⑫ 장사동 247번지(세브란스의전) ⑬ 창신동 채석장(50세가량 노인·홍종현)	

16 다만 최은진의 경우 2025년에 발표된 후속 연구에서 총독부 경무국이 발표한 내용 외에도 만세 시위가 추가로 있었다고 주장했다. 최은진이 인용한 《조선일보》 6월 12일 자 기사에 따르면 10일 오전 10시경 단성사 부근에서 만세 고창 및 격문 살포 사건이 있어 서대문서 경찰이 총출동하여 죽림정과 평동에서 연희전문학교 학생 16명을 검거하여 엄중히 취조하는 일이 있었다. 최은진, 「6.10만세운동 관련 경찰조사와 재판과정」, 『한국근현대사연구』 115(2025), 190쪽; 「延壽生十餘名을 西門署에서 檢舉取調」, 《조선일보》, 1926년 6월 12일.

선행 연구들을 비교 검토한 결과, 연구자들마다 만세 시위가 일어난 장소들을 제각기 정리하고 있는데 최소 7곳에서 최대 13곳으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이 뿐만 아니라 시위 순서와 참여 집단 분석에 있어서도 각기 다른 주장들이 보인다. <표9>는 선행 연구 분석 결과를 토대로 도출한 쟁점을 정리한 것이다.

표9-선행 연구 비교 결과 도출된 쟁점

No.		쟁점
1	1차 시위 장소	정세현은 관수교를 1차 시위 장소로 주목. 정세현을 제외한 모든 연구자들은 단성사 시위를 1차 시위로 주장
2	단성사 시위 참여 집단	단성사 시위에 참여한 집단에 대해 연구자들마다 다르게 주장 ※ 이현희·정세현·최은진: 중앙고보생 단독 거사 ※ 김호일·황요희: 중앙고보생 거사+민중 호응 ※ 장석흥·박현: 중앙고보생 거사+연희전문생 호응
3	장사동 시위 有無	이현희·황요희·최은진·박현은 장사동에서 세브란스의전 학생들의 만세 시위가 있었던 것으로 주장. 박현의 경우 '장사동 8번지'와 '247번지 시위'를 별도의 시위로 구분
4	관수교 시위 참여 집단	관수교 시위 참여 집단에 대해 연구자들마다 다르게 주장 ※ 이현희: 연희전문+보성전문 ※ 정세현·김호일·황요희: 연희전문+보성전문+민중 ※ 장석흥·박현: 연희전문 ※ 최은진: 연희전문+시외전문학교
5	황금정 시위 有無	박현은 황금정 3정목에서 연희전문·숙명여학교 그리고 4정목에서 연희전문 외 다수의 만세 시위가 있었음을 주장
6	도립사범학교와 경성사범학교	박두중 시위 장소에 대해 이현희·황요희는 '도립사범학교'로, 정세현·김호일·장석흥·박현은 '경성사범학교'로 표기. 최은진은 도립사범학교에서 신원 미상 학생들의 시위 후에 박두중이 경성사범학교 앞에서 시위를 전개한 것으로 주장
7	채석장 시위 참가자	채석장 시위의 주인공에 대한 표기가 연구자들마다 다름 ※ 이현희: 홍종현 ※ 정세현: 50세 남성 ※ 황요희: 50세가량 된 홍종현 ※ 장석흥·박현: 50세 남성+홍종현
8	고학당 시위 有無	박현은 고학당에서 신원 미상 학생의 만세 시위가 있었음을 주장
9	만세현장 체포인원 숫자	만세현장에서 체포된 인원 분석에 차이가 있음 ※ 이현희: 43명 ※ 정세현·김호일·장석흥: 42명
10	만세현장에서 체포된 보성 계열 학생 소속	만세현장에서 체포된 보성 계열 학생의 소속에 대해 연구자들마다 다르게 표기 ※ 이현희·정세현: 보성전문 ※ 김호일·장석흥: 보성고보

Ⅲ. 일제 보고서, 언론 보도, 회고 등의 재검토

Ⅲ장에서는 선행 연구의 비교 결과 도출된 쟁점들을 검토하고, 기존 연구가 파악하지 못한 부분들도 확인하기 위해 일제 보고서와 당시 언론 보도, 6·10만세 운동 참여자의 회고 등 주요 핵심 사료들을 전면 재검토해 보고자 한다.

먼저 아래의 <표10>은 만세운동 다음 날인 6월 11일 동대문경찰서장이 경성 지방법원 검사정에게 발송한 문건이다. 해당 사료는 국장 당일 봉결식 종료 후 동대문 일대에서 전개된 만세 시위 전개 과정에 대해 관할 경찰서장이 직접 정리, 보고한 문건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신뢰할 만한 보고라고 볼 수 있다.

표10-동대문경찰서장이 경성지방법원 검사정(檢事正)에 보낸 보고(1926.6.11)¹⁷

No.	시간	장소	참가자	내용
1	12:35	오간수교 복안	천세봉	훈련원 재장(齊場)을 출발한 대여가 장차 청계천에 설치된 오간 수교 복안을 통과하는 찰나 다리 아래에서 태극기와 유사한 종이 깃발 한 장을 휘두르며 만세를 부르는 자가 있어 즉시 체포
2	12:45	동대문부인병원	홍명식	대여가 동대문 부근에 다다르자 홍명식이 종로 6정목 72번지 동대문부인병원 내의 진찰실 앞 부근에서 만세 고창 및 격문 70여 매 살포
3	13:25	송인동 채석장 입구	홍종현	대여가 송인동 경성부 채석장 입구 부근을 통과할 때 홍종현이 피로 대한독립 운운하는 문구를 쓴 태극기를 휘두르며 만세 고창
4	13:45	신설리	김낙환	송인면 신설리 입구에 대여가 다다르자 김낙환이 동대문부인병원 내에서 살포된 것과 동일한 격문 약 60매를 살포
5	14:20	송인동 대묘	황정환, 김재문	대여 통과 후 송인동 대통(大通) 대묘(大廟) 속에서 봉송자의 귀도로 복잡한 중 황정환, 김재문 2명이 만세 고창 및 격문 약 300매 살포

다음으로 <표11>은 6·10만세운동이 끝나고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뒤인 6월 19일 조선총독부 경무국장이 6월 10일 서울 지역 만세 시위의 전개 과정을 정리한 보고서이다. 오후 시위 상황은 동대문경찰서장의 보고서와 거의 동일하지만, 오전의 시위 상황까지 담고 있어 역시 주목을 요한다.

17 해당 보고는 오후 동대문 일대에서 벌어진 시위에 대해서만 보고한 것이다. 「萬歲高唱ニ關スル件」(1926.6.11), 『大正十五年 第一・二次朝鮮共產黨事件檢舉ニ關スル報告綴』, 경성 지방법원 검사국.

표11-조선총독부 경무국장의 보고서(1926.6.19)¹⁸

No.	시간	장소	참가자	내용
1	08:20	관수교 부근	연희전문	대여가 장사동 111번지 관수교 부근을 통과하는 찰나 연희전문학교 학생 이병립, 김규봉 2명이 격문을 약 1천 매 살포하고 만세를 고창하자 학생 약 50명이 호응. 관계 학생 대부분 체포
2	08:20	단성사 앞	중앙고보	중앙고보 학생 이동환 외 수명이 대여가 통과할 때는 만세를 부르지 못하고 시기를 놓쳤다가 관수교 부근에서 일어나는 만세 소리를 듣고 즉시 격문을 1천 매 살포하며 대한독립만세 고창. 도열 학생 대부분이 그에 호응. 관계자 46명 즉시 체포
3	09:00	경성사범 학교	박두중 외 2명	대여가 훈련원 사범학교 앞에 이르자 박두중 외 2명은 격문 약 1천 매를 살포하고 만세 고창
4	12:35	오간수교	천세봉	대여가 훈련원 봉결식장을 출발, 오간수교에 이르자 천세봉이 십자가 및 '근화신국 만세'라 쓰여진 舊한국기를 휘두르며 만세 고창
5	12:45	동대문 부근	홍명식 외 2명	대여가 동대문 부근에 다다르자 홍명식 외 2명이 동대문부인병원 안에서 만세 고창 및 격문 70여 매 살포
6	13:25	채석장 부근	홍종현	대여가 송인동 소재 경성부 채석장 입구 부근을 통과할 때 농부 홍종현이 혈서로 쓴 舊한국기를 흔들며 만세 고창
7	13:45	신설리 입구	김낙환	대여가 송인면 신설리 입구에 이르자 『시대일보』 배달부 김낙환은 격문 200매를 살포 후 만세 고창
8	14:20	대묘 뒤 부근	황정환, 김재문	송인동 대묘 부근에서 장의봉송 행렬로 복잡한 가운데 사립중등학교 생도 황정환 및 휘문고보 김재문 두 명이 격문 약 300매를 살포 후 만세 고창

〈표10〉과 〈표11〉은 기존 보도 및 이를 인용한 선행 연구들과 사뭇 다른 정보들을 담고 있어 눈길을 끈다. 첫째, 단성사가 아닌 관수교 부근을 1차 시위 장소로 지목한 점, 둘째, 홍명식이 단성사에서 체포되지 않고 동대문부인병원에서 만세를 불렀다는 점,¹⁹ 셋째, 김낙환은 동대문부인병원이 아닌 신설리 일대에서 격문을 살포했다는 점, 넷째, 동묘 앞 시위는 김재문과 황정환 두 명이 전개했다는 점 등이다. 이 외에 중앙고보에서는 오전 8시 반 종로 3정목 부근에서 격문을 살

18 「故李王殿下國葬ニ關スル件」(1926.6.19),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ノ部: 李王薨去ト鮮人』.
 19 《동아일보》에 따르면 홍명식 등은 단성사 앞 현장에서 이선호 등이 체포될 때 관련자로 체포된 것으로 나온다(『六月十日 朝鮮〇〇萬歲』, 《동아일보》, 1926년 6월 12일). 이에 기존 연구에서는 홍명식이 단성사 앞 현장에서 체포된 것으로 보았다[장석홍, 앞의 책(2009), 217쪽]. 그러나 기사에서는 당시 현장에서 체포된 것인지 관련자로 나중에 체포된 것인지 다소 모호하게 표현돼 있다.

포하고 중등학교는 단체 봉송 해산 후 동묘 부근에 이르러 살포하기로 합의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

신설리 고무회사 일대에서 만세 시위를 전개한 인물에 대해서는 ‘신원 미상의 학생 1명’으로 그동안 그 정체가 알려진 바 없다. 그러나 해당 자료는 신설리에서 만세를 부른 이가 김낙환임을 밝히고 있다. 기존에 김낙환은 동대문부인병원 부근에서 격문을 살포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이는 총독부 경무국 발표를 인용한 언론 보도에 의한 것으로 보도 당시, 즉 경무국이 사건의 진상을 발표하던 시기까지도 김낙환은 체포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런데 동대문경찰서장의 보고에 따르면 김낙환은 격문 살포 후 평동 12번지²⁰에 몸을 숨기려 했지만, 역시 잠복 중이던 종로경찰서 소속 경찰에게 체포되어 취조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므로 경무국 발표보다도 더 최신의 정확한 정보라 할 수 있다.

물론 해당 자료들 역시 의문점이 존재한다. 보고상의 시위 시간이 기존에 공개된 자료들과 심하게 차이가 난다는 점이다. <표10>과 <표11>에 따르면 천세봉이 오간수교 일대에서 전개한 만세 시위의 시간을 오후 12시 35분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예정대로라면 대여는 봉결식을 마치고 오후 1시에 출발하게 되어 있었다.²¹ 당일 언론들 역시 오후 1시에 대여가 봉결식장에서 출발했고, 이어서 대여가 지나는 길마다 만세 시위가 일어난 것으로 보도했다. 심지어 천세봉의 신문조서에 기록된 시간과도 불일치한다.²² 그러므로 한참 앞선 시각에 대여가 오간수교를 지나고 있었다는 보고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이에 대해서는 뒤의 쟁점 분석에서 재론토록 하겠다.

한편 검거 상황에 대해 경무국장의 보고서는 사립고등보통학교 생도 46명(의 해당 학교 직원 5명 동행), 사립연희전문 30명, 사립세브란스의전 4명, 사립보성전문 7명, 사립배재고보, 관립의학전문, 관립경성대학예과, 보성고보 생도 각

20 조선학생과학연구회 학생들이 격문을 인쇄한 곳이 바로 평동 12번지 김종찬의 집이었다. 「六十萬歲事件 第一回公判」, 《동아일보》, 1926년 11월 3일; 「六十運動의 回顧(上)」, 《독립신보》, 1946년 6월 10일.

21 「御葬儀節次는」, 《조선일보》, 1926년 6월 10일.

22 천세봉의 신문조서에 따르면 천세봉이 오간수교에서 시위를 벌인 시간은 오후 1시 10분이었다. 경성지방법원 검사국, 「천세봉 신문조서(제2회)」, (1926.6.21).

1명, 기타 3명 등을 당일 검거하여 취조한 결과 78명을 구속하고 나머지는 석방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다음으로 언론 보도들에 대해서도 살펴보겠다. 선행 연구들은 주로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에서 보도된 기사를 인용하여 전개 과정을 규명한 바 있다.

표12-동아일보(1926.6.11)²³

No.	시간	장소	참가자	내용
1	08:40	관수교	OO전문학교	영친왕과 의친왕 마차가 지날 때 행렬 동편에서 있던 OO전문학교 학생 수십 명이 격문 살포 및 만세 고창.
			시외 OO전문학교	시외 OO전문학교 학생이 호응. 현장에서 학생 30여명 체포
2	09:00	종로 3정목 동양루 앞	중앙고보	중앙고보 생도들의 격문 살포 및 만세 고창. 현장에서 50여명 학생 검거
3	09:20	황금정 부근	학생	학생이 독립사범학교 앞에서 격문 살포 및 만세 고창. 청년 수십명 체포
4	13:00	동대문부인병원	청년 1	인산 행렬이 동대문을 나서려 할 때 양복 입은 청년 한 명이 동대문부인병원 입구에 나타나 호각을 불며 만세삼창. 해당 청년은 경관에 체포
5	13:20	동대문 밖 약 5~6정의 지점	40세 남성	40세가량 되는 남자가 무슨 깃발을 내어 흔들면서 OOOO를 부름. 즉시 체포
6	15:05	동묘 앞	중등학교 생도 2	중등학교 생도 두 사람과 상민 모양의 청년 한 사람이
			청년 1	격문 살포 및 만세 고창하다 체포
7	미상	장사동 247번지	세브란스의전	세브란스의전생이 격문 살포하다 현장에서 네 명 체포

표13-동아일보 · 조선일보 · 시대일보 · 매일신보 · 경성일보(1926.6.12. 총독부 경무국 발표)²⁴

No.	시간	장소	참가자	내용
1	08:30	종로 3정목 단성사 앞	중앙고보	중앙고등보통학교 생도 약 3~40명이 격문 살포 및 만세 고창

23 「鐵甕城가튼 警戒網裡」, 《동아일보》, 1926년 6월 11일.

24 「六月十日 朝鮮○○萬歲」, 《동아일보》, 1926년 6월 12일; 「朝鮮○○萬歲事件 續報」, 《조선일보》, 1926년 6월 12일; 「學生○○萬歲事件 續報」, 《시대일보》, 1926년 6월 12일; 「悲雲重疊한 國葬日에 一部 學生의 萬歲騷動」, 《매일신보》, 1926년 6월 12일; 「淺墓な出來心で根底も連落もない」, 《경성일보》, 1926년 6월 12일.

No.	시간	장소	참가자	내용
2	08:35 ²⁵	관수교	연희전문	연희전문학교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약 50명이 격문 살포 및 만세 고창
3	09:30	경성사범학교 앞	박두중 외 청년2	종로 중앙기독교청년학관 생도 박두중 외 학생 아닌 청년 2명 ²⁶ 이 격문 살포 및 만세 고창
4	13:00	훈련원 재전 부근	학생 1	학생 한 명이 태극기를 흔들며 만세 고창
5	13:10 ²⁷	동대문부인병원 안	김낙환 외 청년2	대여가 지나간 후 《시대일보》배달부 김낙환(아직 체포 전) ²⁸ 외 청년 두 명이 격문 살포 및 만세 고창 ²⁹
6	미상	창신동 채석장 입구	50세 노인	약 50세가량 된 노인 한 사람이 만세 고창
7	13:45 ³⁰	송인면 신설리	학생	대여가 고무회사 앞을 지나갈 때 어떤 학생이 격문 100여 장 살포 ³¹
8	14:20	동묘 앞	통동계4	학생 4명(박용규·곽대형·황정환·이동환)이 관수교 부근에서 살포한 것과 같은 격문 약 700장을 살포

이상 <표12>와 <표13>의 보도 내용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선행 연구들이 모두 참고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표13>의 경우 총독부 경무국의 공식 발표를 그대로 인용 보도한 것으로 가장 구체적인 정보를 담고 있기에 선행 연구에서도 사실상 해당 자료를 기본으로 삼아 전개 과정을 분석했던 것 같다.

본고에서는 이에 더해 《경성일보》와 《시대일보》, 《고베신문(神戸新聞)》 등의 기사들을 재검토한 결과, 그동안 선행 연구에서 언급하지 않았던 새로운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25 《조선일보》, 《동아일보》, 《매일신보》, 《경성일보》는 8시 25분으로, 《시대일보》는 8시 35분으로 보도.

26 《시대일보》는 박두중 외 3명으로 보도, 《경성일보》는 인원수를 보도하지 않음.

27 《매일신보》는 오후 1시경으로 보도.

28 《경성일보》는 김낙환의 이름을 김사환(金思煥)으로 보도.

29 《조선일보》와 《매일신보》 보도는 김낙환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두 명의 학생이 불온문서 산포 후 만세를 고창하였다고만 한다. 《경성일보》는 김낙환 외에 함께 만세를 부른 이들의 인원수를 보도하지 않았다.

30 《매일신보》는 13시 10분으로 보도.

31 《시대일보》는 격문 약 500매가량으로 보도.

표14-경성일보(1926.6.11)³²

No.	시간	장소	참가자	내용
1	08:40	돈화문 부근	보성전문	대여의 후미가 창덕궁 돈화문을 떠나자 보성전문학교 생도가 불온한 행동. 범인 수명은 즉시 현장에서 체포. 보성고보 생도 50여 명은 그대로 현장에 머무르며 교장 박승빈 및 장례 행렬이 지나가자 격문 살포
			보성고보	
2	08:45	단성사 앞	연희전문	대여가 지나갈 때 서측에 도열한 군중의 배후에서 대여를 향해 불온한 행동을 하는 자 있음. 범인은 연희전문·중앙고보·세브란스의전·보성전문·배재고보 학생이 많고 그중에는 60세 이상의 노인, 여학생도 참가
			중앙고보	
			세브란스의전	
			보성전문	
			배재고보	

〈표14〉에서는 단성사 시위에 앞서 오전 8시 40분 돈화문 부근에 보성전문학교 및 보성고등보통학교 학생들의 시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기사 외에 돈화문 부근에서 시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전하는 자료가 확인되지 않기에 사실 여부가 불분명하다. 마찬가지로 단성사 앞에서 중앙고보 외에 연희전문, 세브란스의전, 보성전문, 배재고보 학생들이 만세를 부른 사실도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표15-시대일보(1926.6.11)³³

No.	시간	장소	참가자	내용
1	08:30	장사동 8번지	세브란스 전문	대여가 장사동 8번지 앞에 이르자 오른쪽에 도열하고 있던 세브란스전문학교 학생들이 격문 살포 및 만세 고창
2	08:20 ³⁴	단성사 앞	중앙학교	단성사 근처에서 대여 행렬이 지나간 후 중앙학교 학생 선창으로 만세 고창 및 격문 살포, 다수 학생과 교원이 현장에서 검속
3	09:00	황금정 3정목	연희전문	발인 행렬이 황금정 3정목을 통과한 후에 연희전문 학생 200여 명이 격문 살포 및 만세 고창, 연희전문학생 20여 명 외 경성제대 학생 두 명도 현장 검속
			경성제대	

32 「警戒網を破つて不謹慎なふる舞」, 「六十の老人や女學生も交る」, 《경성일보》, 1926년 6월 11일.

33 「鐵桶가튼警戒中에 沿道學生 萬歲高唱」, 《시대일보》, 1926년 6월 11일.

34 8시 30분 장사동 8번지에서의 시위를 최초 시위로 보도하면서도, 2차 시위 장소인 단성사 앞 시위 시간은 8시 20분으로 보도한 점은 미스터리이다.

No.	시간	장소	참가자	내용
4	09:15	훈련원 부근	신원 미상	대여가 훈련원 식당에 들어서려는데 때 봉도군중 속에서 어떤 사람이 격문 살포 및 만세 고창
5 ³⁵	09:20	황금정 3정목	연희전문	대여가 통과하자 연희전문 생도 일대가 선두로 격문을 뿌리며 지나가자 도열한 숙명여학교 학생들이 만세 고창
			숙명여학교	
6	09:30	황금정 4정목 (경성사범학교 부근)	학생 1, 청년 1	학생 한 명과 청년 한 명이 격문 살포하다 피체. 연희전문 학생 한 명 외 다수 인원 검속. 몇 명은 격문과 기폭을 품고 있다 체포
7	12:30	동대문부인병원	학생들	소여(小囍)가 동대문 옆에 다다랐을 즈음에 동대문부인병원에서 몇 명의 학생이 뛰어나와 몇천 명의 격문을 살포하며 만세 고창
8	미상	동대문 밖 고학당	학생	인산 행렬이 동대문 밖 고학당 앞을 지날 때 학생이 몇천 명의 격문 살포 및 만세 고창
9	미상	미상	유생 1	35~36세가량 되는 유생 한 명이 깃발에 과격한 문구를 쓴 채 시내를 돌며 만세를 부르다 체포

표16-시대일보(1926.6.12)³⁶

No.	시간	장소	참가자	내용
1	08:45	관수교 부근	연희전문	영친왕의 마차가 통과할 때 연희전문 학생 50여 명이 격문 살포 및 만세 고창
2	09:00	단성사 앞	중앙고보	중앙고보 생도들의 격문 살포 및 만세 고창
3	09:30	경성사범학교 앞	박두종 외 2	박두종 외 두 사람이 6,000여 장의 격문 살포 및 만세 고창
4	09:30	황금정 3정목 및 4정목	미상	다수의 격문 살포 및 만세 고창
5	13:00	훈련원 봉결식장	미상	대여가 봉결식장을 떠나려 할 때 부근에서 누군가 태극기를 휘두르며 만세 고창
6	13:15	동대문부인병원	학생 2	대여가 동대문부인병원 앞을 지날 때 두 사람의 학생이 격문 살포 및 만세 고창
7	13:30	창신동 채석장	오치림	채석장 들어가는 곳에서 오치림이라는 44살 유생이 흰 종이로 만든 깃발을 휘두르며 만세 고창
8	13:45	신설리 고무공장	학생 수명	대여가 지날 때 수명의 학생이 격문 살포 및 적기(赤旗)를 휘두르며 만세 고창
9	14:20	동묘 앞	학생 4	네 명의 학생이 700여 장의 격문 살포 및 만세 고창

35 3번의 시위와 동일한 시위로 보인다.

36 「繼續의 突發 真相」, 《시대일보》, 1926년 6월 12일.

〈표15〉와 〈표16〉은 각각 11일과 12일에 보도된 《시대일보》 기사의 전개 과정을 정리한 것이다. 《시대일보》 보도에서는 장사동 시위 장소(8번지)와 황금정 3정목에서의 연회전문, 경성제대, 숙명여학교 학생들의 시위 사실이 확인된다. 또 황금정 4정목에서 연회전문 학생들이 검속된 사실, 대여가 훈련원 봉결식장에 들어설 때 누군가 격문을 살포하고 만세를 부른 사실, 채석장 부근에서의 오치림이라는 유생의 시위 등을 전하고 있다.

장사동 시위 장소에 대해 《동아일보》에서는 247번지로 보도한 바 있는데, 《시대일보》는 8번지로 지목했다. 별개의 지역에서 일어난 두 개의 시위로 볼 수도 있겠지만, 두 보도 모두 장소만 다를 뿐 세브란스의전 학생들이 주도한 시위로 밝히고 있는 데다가, 8번지와 247번지 사이는 100m도 되지 않는 짧은 구간이었으므로 하나의 시위로 보는 게 맞을 것 같다.

한편 황금정 일대에서의 시위는 사실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경성제대 이천진 등이 격문과 태극기 등을 갖고 황금정에서 대기했다는 진술이 확인되기 때문이다.³⁷ 또 대여가 훈련원 봉결식장에 들어설 때 시위가 있었던 사실도 다른 보도를 통해 교차 검증이 된다.³⁸

채석장 인근에서 유생 오치림이 만세를 불렀다는 정보는 나이와 이름 등이 매우 구체적이다. 그러나 경무국장 보고서에 의하면 채석장에서 홍종현이 만세를 고창할 당시 호응하는 이가 없었다고 한다.³⁹ 그렇다면 채석장에서의 시위는 홍종현의 단독 거사였고 오치림의 시위 사실은 오보였을 가능성이 높다. 오치림이라는 이름이 《시대일보》 기사 외에 다른 기록들에서는 전혀 발견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보도의 사실 여부를 의심케 한다.

37 다만 이천진은 황금정에서 대기 중 거사를 알리는 호각소리가 들리지 않아 봉결식장으로 달려가다가 도중에 해산되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六十萬歲事件公判續報」, 《동아일보》, 1926년 11월 4일.

38 「混雜にまぎれて學生頻に騒ぐ」, 《神戸新聞》, 1926년 6월 11일.

39 「故李王殿下國葬ニ關スル件」(1926.6.19),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ノ部: 李王薨去ト鮮人』

표17-고베신문(1926.6.10~11)⁴⁰

No.	시간	장소	참가자	내용
1	08:45	관수교 부근	연희전문	학생이 무언가를 던지고 도주. 연희전문학교 학생이 만세 불러 2명 체포
2	미상	장사동 247번지	세브란스의전	세브란스의전 학생이 행렬을 향해 격문 살포. 범인 4명 즉각 체포
3	09:00	수어동 500번지 ⁴¹	중앙고보	중앙고보 학생이 격문 살포 및 만세 고창
4	미상	훈련원	미상	대여가 훈련원 봉결식장으로 들어가려는 참에 누군가 만세 고창 및 격문 살포
5	10:00	미상	세브란스의전	격문 살포 시도
			배재고보	

《고베신문》의 경우 세브란스의전의 시위 장소를 《동아일보》와 마찬가지로 ‘장사동 247번지’로 보도하고 있다. 아울러 대여가 훈련원 봉결식장에 들어갈 무렵에도 한 차례의 만세 시위가 있었다는 사실⁴²과 오전 10시 불상의 장소에서 세브란스의전 및 배재고보 학생들의 격문 살포 시도가 있었다는 사실도 전하고 있다. 특히 이때 세브란스의전 및 배재고보 학생들이 살포하려던 격문에는 《동아일보》 김성수 사장의 이름이 들어 있었던 탓에, 종로경찰서에서 김성수를 구인, 취조했다는 사실도 담고 있다.⁴³

마지막으로 6·10만세운동에 참여했던 이들의 회고도 살펴보고자 한다.

〈표18〉은 6·10만세운동을 주도한 이들이 훗날 남긴 회고에서 6월 10일 만세 시위 전개 과정만을 정리한 것이다. 기본적으로 이동환의 기록을 토대로 정리한 것으로 보이나, 6·10만세운동 참여자들이 조직한 단체에서 발간한 기록이므로 당시 시위 참여자들의 공통된 기억이라고 봐도 무방할 듯하다.

해당 회고는 시위 장소를 5곳으로 기억하고 있다. 단성사와 관수교 부근 시위

40 「東亞日報の社長拘引」, 《神戸新聞》, 1926년 6월 10일; 「混雜にまぎれて學生頻に騒ぐ」, 《神戸新聞》, 1926년 6월 11일.

41 수은동(現 묘동·종로3가 일대)의 오기로 보인다.

42 《시대일보》 보도를 통해 교차 검증된다.

43 통동계 학생들이 민중 동원을 위해 ‘조선민족대표 김성수, 최남선, 최린’의 명의로 격문을 인쇄한 바 있다.

표18-이동환 회고(1980)⁴⁴

No.	시간	장소	참가자	내용
1	08:40	단성사 앞 도로 서편 (피카디리)	중앙고보	대여를 봉도 배송한 뒤 이선호가 이동환에게 눈짓으로 암호. 이동환이 학생들에게 신호하는 동안 이선호가 도열한 학생들 앞에 돌출하여 격문 살포 후 태극기 휘두르며 만세 고창. 이동환은 손에 들고 있던 선전문 살포. 박용규 이하 5학년생 전원이 호응했고 4학년 학생들 중에는 최제민과 유면희가 선전문 및 격문 살포 후 태극기 휘두르며 만세 고창
2	09:00	관수교 부근 동편	연희전문	대여를 봉송한 뒤 이병립과 박하균이 격문 살포 후 태극기 흔들며 만세 고창. 김규봉, 권오상, 한일청, 이석훈 등 전교생이 호응
3	09:00	경성사범학교 앞	박두중	
4	미상	훈련원 봉결식장 뒤	이천진	
5	14:00	송인동 동묘 뒤	김재문, 황정환, 곽대형	

현장에서 만세를 부른 주동자들의 구체적인 이름도 확인되는데, 특히 훈련원 봉결식장 뒤에서 이천진이 만세 시위를 전개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훈련원 봉결식장 부근에서 봉결식 전후로 시위가 전개됐다는 사실은 당시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된다(〈표13·15·16·17〉 참조). 그러나 두 시위 모두 누가 주도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봉결식 전후로 열린 두 개의 시위 중 어떤 시위에 참여했는지 알 수는 없으나 이천진이 어느 한 시위를 주도했을 것으로 추측된다.⁴⁵ 이 외에 동묘 앞 시위의 주도자를 김재문, 황정환, 곽대형 세 명으로 꼽은 것을 알 수 있다.

44 六十同志會, 『六十萬歲肯綮』(서울: 명진사, 1980).

45 다만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천진은 황금정에서 대기 중 거사를 알리는 호각소리가 들리지 않아 봉결식장으로 달려가다가 도중에 해산되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이는 시위 사실을 감추기 위한 거짓 진술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六十萬歲事件公判續報」, 《동아일보》, 1926년 11월 4일.

IV. 쟁점 분석

IV장에서는 앞서 정리한 사료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선행 연구 비교 결과 드러난 몇 가지 쟁점들에 대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1. 1차 시위 장소

정세현은 단성사 시위에 앞서 관수교에서 시위가 전개된 것으로 분석했는데, 이는 오전 8시 25분에 관수교 부근에서 연희전문학교 학생들이 시위를 전개했다는 보도를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⁴⁶ 실제로 총독부 경무국장이 작성한 보고서(<표11> 참조)에 따르면 오전 8시 20분 관수교 부근에서 연희전문 학생들이 시위를 전개하자, 단성사 앞에 있던 중앙고보 학생들이 그 소리를 듣고 동시다발적으로 시위를 전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런데 6월 11일 자 《시대일보》 보도를 정리한 <표15>를 보면 장사동 8번지에서 서의 세브란스의전 학생들의 만세 시위가 일어난 후, 단성사에서 2차로 만세 시위가 일어난 것으로 보도했다. 해당 기사에서 관수교 부근 시위는 언급되지 않는다.

당시 상황을 보도한 다른 기사들에 따르면 관수교 부근 시위는 순종의 시신을 실은 대여가 지나가고 그 후미에서 영친왕과 의친왕 등의 마차가 지나갈 때 벌어졌다고 한다.⁴⁷ 이병립 등은 불경한 행동을 하지 않기 위해 대여가 지나간 후 시위를 전개했다고 진술한 바 있으므로,⁴⁸ 관수교 이전 장소인 장사동 8번지(혹은 247번지)에서 1차 시위가 벌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46 국장 이틀 뒤인 6월 12일 《조선일보》, 《동아일보》, 《매일신보》, 《경성일보》는 총독부 경무국 발표를 인용하여 8시 25분 관수교 시위가 있던 것으로 보도했고, 《시대일보》는 8시 35분으로 보도했다. 「六月十日 朝鮮○○萬歲」, 《동아일보》, 1926년 6월 12일; 「朝鮮○○萬歲事件 續報」, 《조선일보》, 1926년 6월 12일; 「悲雲重疊한 國葬日에 一部 學生의 萬歲騷動」, 《매일신보》, 1926년 6월 12일; 「淺墓な出來心で根底も連落もない」, 《경성일보》, 1926년 6월 12일; 「學生○○萬歲事件 續報」, 《시대일보》, 1926년 6월 12일.

47 「鐵甕城가튼 警戒網裡」, 《동아일보》, 1926년 6월 11일; 「警戒網を破つて不謹慎なふる舞」, 《경성일보》, 1926년 6월 11일.

48 「六十萬歲事件 第一回公判」, 《동아일보》, 1926년 11월 3일.

다만 이동환 등 당시 시위에 참여했던 이들 중에는 단성사 앞 시위를 1차 시위로 회고하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이들이 남긴 회고는 대부분 시간이 많이 흘러 기억이 흐릿해진 상황에서 나온 증언이라는 점, 후대에 누군가로부터 들은 것을 증언한 이들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당시 현장 상황을 취재한 언론 보도와 일제 당국이 작성한 보고서의 결론에 좀 더 무게를 싣고자 한다.

요컨대 모든 정보들을 종합해 봤을 때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하다. 대여가 관수교를 통과한 직후 연희전문 주도의 시위가 1차로 전개됐다. 동시에 행렬의 후미가 이어지고 있던 장사동 247번지(혹은 8번지)에서 세브란스의전 주도의 2차 시위가 일어났으며, 관수교 일대에서의 합성을 들은 중앙고보 학생들이 단성사 부근에서 3차 시위를 전개한 것이다.

2. 단성사 시위 참여 집단

이현희·정세현·최은진은 단성사 시위를 중앙고보 학생들의 단독 거사로 보았다. 김호일과 황묘희는 중앙고보생들의 거사가 있자 민중이 호응한 것으로 주장했다. 장석홍과 박현은 중앙고보생들의 거사에 연희전문 학생들이 호응하여 두 학교 학생들이 함께 시위를 전개한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당시 보도나 공판 기록들을 종합해 보면 단성사 시위는 중앙고보생들의 단독 거사로 보는 것이 맞을 듯하다.⁴⁹

49 「鐵叢城가든 警戒網裡」, 《동아일보》, 1926년 6월 11일; 「鐵桶가든 警戒中에 沿道學生 萬歲高唱」, 《시대일보》, 1926.6.11; 「六月十日 朝鮮○○萬歲」, 《동아일보》, 1926년 6월 12일; 「朝鮮○○萬歲事件 續報」, 《조선일보》, 1926년 6월 12일; 「學生○○萬歲事件 續報」, 《시대일보》, 1926년 6월 12일; 「悲雲重疊한 國葬日에 一部 學生의 萬歲騷動」, 《매일신보》, 1926년 6월 12일; 「淺墓な出來心で根底も連落もない」, 《경성일보》, 1926년 6월 12일; 경성지방법원, 「이선호 외 10인에 대한 판결문」, 1926.11.17. 예외적으로 《경성일보》는 단성사 현장에 연희전문학교 학생들이 참여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연희전문 외에도 세브란스의전, 보성전문, 배재고보 등 다른 지역에서 시위를 전개했던 여러 학교를 열거하고 있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해당 기사 외에 다른 보도나 공판 기록에서 연희전문 학생들의 단성사 시위 참여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警戒網を破つて不謹慎なふる舞」, 「六十の老人や女學生も交る」, 《경성일보》, 1926년 6월 11일.

3. 장사동 시위 유무(有無)

이현희·황묘희·최은진·박현은 장사동에서 세브란스의전 학생들의 만세 시위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이는 《동아일보》 및 《시대일보》 보도를 통해 확인되는 사실이다.⁵⁰

다만 《동아일보》는 시위가 벌어진 장소를 ‘장사동 247번지’로, 《시대일보》는 ‘장사동 8번지’로 보도하여 정확한 위치 고증은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이현희·황묘희·최은진 모두 관수교 시위 다음에 장사동 시위가 전개된 것으로 보았다. 쟁점 분석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관수교-장사동-단성사 순으로 만세 시위가 전개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박현의 경우 장사동 8번지와 247번지에서 각각 시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았으나, 두 장소는 거리상 매우 인접해 있으면서, 참여 주체 역시 세브란스의전 학생들로 동일하다는 점에서 이를 별도의 시위로 구분하기는 어렵다고 여겨진다.

4. 관수교 시위 참여 집단

관수교 시위에 참가한 집단에 대해 이현희(연희전문+보성전문), 정세현·김호일·황묘희(연희전문+보성전문+민중), 장석홍·박현(연희전문), 최은진(연희전문+시외전문학교) 등 연구자들마다 의견이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연희전문 학생들의 참가 사실은 공통된 주장인데, 이는 당시 보도를 통해 확인된다.⁵¹

그렇다면 보성전문학교 그리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시외전문학교의 참가 사실이 주목된다. 관수교 시위에 보성전문 학생들이 참가한 사실은 만세운동 당일 총

50 「鐵甕城가튼 警戒網裡」, 《동아일보》, 1926년 6월 11일; 「鐵桶가튼 警戒中에 沿道學生 萬歲高唱」, 《시대일보》, 1926년 6월 11일.

51 「六月十日 朝鮮○○萬歲」, 《동아일보》, 1926년 6월 12일; 「朝鮮○○萬歲事件 續報」, 《조선일보》, 1926년 6월 12일; 「學生○○萬歲事件 續報」, 《시대일보》, 1926년 6월 12일; 「悲雲重疊한 國葬日에 一部 學生의 萬歲騷動」, 《매일신보》, 1926년 6월 12일; 「淺墓な出來心で根底も連落もない」, 《경성일보》, 1926년 6월 12일.

독부 경무국장이 내각 서기관장에게 보낸 전문(電文)에서 확인된다.⁵² 그리고 최은진이 언급한 시위전문학교 역시 보성전문학교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⁵³ 그러므로 관수교 시위 당시 연희전문학교 및 보성전문학교가 함께 시위에 나선 것으로 볼 수 있다.

5. 황금정 시위 유무(有無)

박현은 황금정 3정목과 4정목에서 만세 시위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황금정 3~4정목 일대에서의 시위 사실은 《시대일보》 6월 11일 자와 12일 자 보도에서 확인된다(〈표15·16〉 참조). 즉 황금정 3정목에서 연희전문 학생들의 시위가 있었으며, 이때 숙명여학교 학생들도 함께 만세를 불렀다. 경성제대 학생들이 만세를 부른 것은 확실하지 않으나 현장에서 체포된 것으로 보아 가담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에 따라 황금정 3정목 일대에서의 시위는 사실로 보인다.

황금정 4정목에서는 미상의 인물 다수가 시위에 참가했으며, 연희전문 외 다수가 검속을 당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그런데 〈표15〉의 《시대일보》 기사에서는 황금정 4정목 시위에 대해 경성사범학교 부근에서 학생 한 명과 청년 한 명이 전개한 시위로 보도하고 있다. 실제로 경성사범학교는 황금정 5정목과 6정목 사이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⁵⁴ 황금정 4정목과 인접한 지점에 위치하고 있어 당시 언론이 황금정 4정목 일대로 혼동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황금정 4정목 시위는 경성사범학교 부근에서 박두중 등이 전개한 시위와 동일한 시위로 판단된다.

52 「国葬当日ニ於ケル動靜」(1926.6.10), 『故大勲位李王國葬書類 卷五止』.

53 「鐵甕城가튼 警戒網裡」, 《동아일보》, 1926년 6월 11일; 「豪華의 中等蹴球戰 昨日, 盛大舉行」, 《동아일보》, 1940년 5월 5일.

54 「高師의 朝鮮試驗 京城師範서 施行」, 《동아일보》, 1930년 12월 19일; 「夜半大路上에서 同行夫婦大逢變」, 《조선일보》, 1934년 9월 28일.

6. 도립사범학교와 경성사범학교

중앙기독교청년회관 학생 박두중 등이 시위를 전개한 장소에 대해 이현희·황묘희는 ‘도립사범학교’로, 정세현·김호일·장석홍·박현은 ‘경성사범학교’로 소개했다. 그런데 최은진은 6월 11일과 12일에 보도된 《동아일보》 기사⁵⁵를 바탕으로 9시 20분경 황금정 도립사범학교 앞에서 신원 미상의 학생들이 주도한 만세 시위가 있었고, 이어 9시 30분경 경성사범학교 앞에서도 박두중 등이 주도한 만세 시위가 전개되었다고 서술함으로써 별도의 장소에서 진행된 시위로 구분했다.

그러나 경성사범학교는 황금정에 있던 도립사범학교로, 기사에서 말하는 황금정 도립사범학교는 곧 경성사범학교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⁵⁶ 따라서 별개의 시위가 아닌 단일한 시위로 보는 게 맞을 듯하다.

7. 채석장 시위 참가자

이현희는 채석장 시위의 주인공을 ‘홍중현’으로, 정세현은 ‘50세 남성’으로, 황묘희는 ‘50세가량 된 홍중현’이라 하여 50세 남성과 홍중현을 동일인물로 보았다. 장석홍과 박현은 두 사람을 별도의 인물로 보면서 두 개의 시위가 전개된 것으로 파악했다. 그러나 50세 남성이 누구인지 신원을 특정하지는 못했다.

당시 채석장 부근에서 44세 유생 오치림이 깃발을 휘두르며 만세를 고창했다는 보도가 확인된다.⁵⁷ 다만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오치림이라는 이름이 12일자 《시대일보》 기사 한 군데에서만 확인되고 있을뿐더러, 총독부 경무국장 보고서에서도 홍중현 외에 다른 거사 이야기는 드러나지 않는다.⁵⁸ 그러므로 오치림의 시위가 실제로 존재했는지 여부는 아직까지 불분명하다.

55 「鐵叢城가튼 警戒網裡」, 《동아일보》, 1926년 6월 11일; 「六月十日 朝鮮〇〇萬歲」, 《동아일보》, 1926년 6월 12일.

56 「學生給費를 減額」, 《동아일보》, 1925년 1월 13일; 「登場한 試驗地獄」, 《조선일보》, 1938년 2월 13일.

57 「繼續의 突發 真相」, 《시대일보》, 1926년 6월 12일.

58 「故李王殿下國葬ニ關スル件」(1926.6.19),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ノ部: 李王薨去ト鮮人』.

8. 고학당 시위 유무(有無)

박현은 동대문 밖 고학당(苦學堂) 앞에서도 신원 미상의 학생 한 명이 만세 시위를 전개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11일 자 《시대일보》 기사에서 확인된다(〈표15〉 참조). 다만 다른 기사에서는 고학당 앞 시위가 확인되지 않는다.

그런데 고학당 학생들의 직업훈련기관이 ‘서울고무공사’였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⁵⁹ 즉 해당 시위는 서울고무공사 앞에서 김낙환이 전개한 시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판단된다.

9. 만세현장 체포인원 숫자

선행 연구들은 만세 시위 현장에서 체포된 인원을 210여 명으로 정리했다. 이는 1926년 6월 11일 자 《동아일보》 기사를 근거로 한 분석으로 추정된다.⁶⁰ 그런데 이때 피체된 연희전문학교 학생들의 숫자에 대해 이현희는 43명으로 보았으나 다른 연구자들(정세현·김호일·장석홍)은 42명으로 정리했다. 해당 기사는 이현희가 분석한 것처럼 연희전문학생 43명이 피체된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

한편 같은 날 발행된 《시대일보》 기사에서는 당일 현장에서 체포된 인원들에 대해 경성제대 2명, 연희전문 50명, 세브란스 30명, 보성법률전문 40명, 중앙고보 60명, 배재고보 4명, 양정고보 3명, 모(某) 여자고보 1명, 독립사범학교 10여 명으로 보도하고 있다.⁶¹ 또 6월 19일 총독부 경무국장이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사립고등보통학교 46명(외 같은 학교 직원 5명 동행), 연희전문 30명, 세브란스의전 4명, 보성전문 7명, 배재고보 1명, 관립의학전문 1명, 관립경성대학 1명, 보성고보 1명, 기타 3명 등 총 106명을 검거했다고 밝히고 있다.⁶² 문제는 기존 선행 연구들이 분석한 체포인원 숫자(210명)와 일치하지 않으며, 보고서상의 학

59 「苦學堂 曉光」, 《동아일보》, 1925년 5월 8일.

60 「各署連絡으로 八方에서 檢學」, 《동아일보》, 1926년 6월 11일.

61 「自動車로 續續檢學, 生徒教師 二百餘名」, 《시대일보》, 1926년 6월 11일.

62 「故李王殿下國葬ニ關スル件」(1926.6.19),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ノ部: 李王薨去ト鮮人』.

교별 체포인원 숫자(94명 혹은 동행한 교직원 수까지 포함해도 99명)와 합계로 제시한 숫자(106명) 자체도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보도와 공식 보고서의 숫자가 제각각이기에 현재로서는 정확한 체포인원을 특정하기 어렵다.

10. 만세현장에서 체포된 보성 계열 학생 소속

당일 현장에서 피체된 학생들 중 보성 계열 학생들의 소속에 대해 이현희·정세현은 ‘보성전문’으로, 김호일·장석홍은 ‘보성고보’로 각각 분석했으나, 《동아일보》에서 ‘보전(普專) 학생 7명’으로 그 소속을 명확히 보도하고 있는 만큼, 보성고보가 아닌 보성전문 학생이 붙잡힌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⁶³

이상 10가지는 선행 연구의 비교 결과 도출된 쟁점들을 분석한 결과이다. 그리고 사료 검토 결과 추가로 확인된 두 가지 쟁점에 대해서도 검토하고자 한다.

11. 만세 시위 시간

앞서 일제 경찰 당국의 보고서를 정리한 <표10>과 <표11>에서 확인한 것처럼, 공식 보고서상의 만세 시위 전개 시간과 언론 보도상의 시간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공식 보고서는 오후 12시 35분 천세봉의 시위를 시작으로 오후 시위가 전개된 것으로 정리했지만, 당시 언론은 대부분 1시 이후 시위가 전개된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 실제로 대여는 봉결식을 마치고 오후 1시에 출발할 예정이었다.⁶⁴

그런데 11일 자 《시대일보》는 예외적으로 오후 12시 30분에 동대문부인병원에서 시위가 전개된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표15> 참조). 그렇다면 다른 언론들이 시간을 잘못 보도했을 가능성도 있다.

또한 오후 1시에 대여가 훈련원을 출발한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예정 시간이었

63 「各署連絡으로 八方에서 檢舉」, 《동아일보》, 1926년 6월 11일.

64 「御葬儀節次는」, 《조선일보》, 1926년 6월 10일.

으므로, 실제 현장에서는 모종의 이유로 출발이 앞당겨졌을 가능성도 있다. 6월 10일 봉결식 종료 후 장의위원장이 내각총리대신에게 보낸 보고서를 보면 대여는 오전 9시 10분 봉결식장에 안착했고, 오전 11시 30분 종료된 것으로 확인된다.⁶⁵ 이후 대여가 언제 출발했는지까지는 보고서상에 등장하지 않지만, 오후 1시부터 이른 시간에 출발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일제 경찰 당국이 기록한 시간이 보다 사실에 가까울 것으로 판단된다.⁶⁶

12. 동묘 앞 시위 참가자

선행 연구들은 통동계 학생 중 4명(박용규·곽대형·황정환·이동환)이 동묘 앞 시위에 참여한 것으로 보았다.⁶⁷

그러나 공판 당시 이동환은 단성사 앞 현장에서 이미 체포됐다고 진술했다. 즉 이동환은 동묘가 아닌 단성사 앞에서 격문을 뿌리던 중 이선호 혼자 만세를 부르다가 잡혀가는 모습을 보고 여러 학생들을 향해 ‘어찌 같이 만세를 부르지 않냐’고 질책하다가 피체됐던 것이다.⁶⁸ 이를 뒷받침하듯이 같은 날 보도된 《동아일보》의 또 다른 기사에서는 종로경찰서에서 이동환이 이선호와 함께 단성사 앞 시위를 주도한 두 명 중 한 명으로 지목되어 취조 중이며, 특히 현장에서 체포되던 당시 매를 맞아 부상을 당했다고 구체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이는 단성사 앞에서 체포됐다는 이동환의 진술과 일치한다.⁶⁹

박용규 역시 단성사 옆에 있다가 군호 소리를 따라 일제히 만세를 부르기로 했는데, 군호 소리가 나지 않기에 소리 날 때만 기다리다 만세를 불러보지도 못하

65 葬儀委員長, 「國葬儀執行ニ關スル報告ノ件」(1926.6.10). 『故大勳位李王國葬書類 卷二』.

66 다만 이는 천세봉의 신문조서 속 시간과도 상충된다. 천세봉은 자신이 오간수교에서 시위를 벌인 시간을 오후 1시 10분이라고 진술했는데, 급박한 현장 상황에서 시각을 착각하여 잘못 진술한 것을 그대로 인용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사료된다. 경성지방법원 검사국, 「천세봉 신문조서(제2회)」(1926.6.21).

67 이에 대한 근거는 1926년 6월 12일 자 《동아일보》 기사인 것으로 추정된다. 「六月十日 朝鮮○○萬歲」, 《동아일보》, 1926년 6월 12일.

68 「六十萬歲事件公判續報」, 《동아일보》, 1926년 11월 4일.

69 「取調받는 學生, 現在는 百六名」, 《동아일보》, 1926년 6월 12일.

고 붙잡혔다고 진술했으며, 광대형은 김재문과 함께 격문을 들고 동대문 부근으로 갔지만 일행을 잃어버리는 바람에 시위에 참여치 않고 귀가했다고 진술했다.⁷⁰

그런데 선행 연구에서 누락된 인물로 김재문이 있다. 김재문은 단성사 앞 시위 당시 창덕궁 부근에 있었지만 대여가 통과할 때는 행렬에 방해가 될까 봐 격문을 뿌리지 못했다. 이후 현장 일대가 혼란스러워지자 격문 살포의 기회를 놓쳤다고 판단하여 일단 귀가한 뒤 오후에 동묘로 가서 격문을 살포했다. 요컨대 동묘 앞 시위에 참여한 인원은 통동계 인원 중 김재문과 황정환 두 명이었던 것으로 보인다.⁷¹

V. 6월 10일 서울 지역 만세 시위의 재구성

이제 III~IV장에서 검토한 바를 토대로 6월 10일 서울 지역 만세 시위의 전개 과정을 최대한 조밀하게 재구성해 보고자 한다.

1926년 6월 10일 순종의 인산일이 밝았다. 이날 경성에는 인산을 지켜보기 위해 지방에서 올라온 이들과 합해 30여만 명에 이르는 대인원이 모여 있었다.⁷² 연도에는 일반 민중, 학생, 단체 등의 봉도자 수십만 명이 양측에 도열하고, 일제는 혹시 모를 돌발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보병·기병·포병 등 약 5천 명의 병력을 출동시켜 시내 곳곳을 엄중 경계했다. 이때 일제는 3·1혁명이 일어났던 종로 파고다공원에 임시사령본부를 설치하고, 군인들을 빼곡하게 배치했다. 군인들은 10명 혹은 20명 단위로 몰려다니며 시위를 전개했다. 이때 권총을 휴대한 수천

70 「六十萬歲事件公判續報」, 《동아일보》, 1926년 11월 4일; 다만 광대형의 경우 훗날 이동환 등의 회고에서는 동묘 앞 시위에 참여한 한 명으로 등장한다. 광대형이 실제 시위에 참여했을 가능성도 있으나, 일제 보고서에는 그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데다가, 법정에서도 본인은 시위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던 만큼 그가 시위에 참여했다고 선불리 판단하기는 어렵다(〈표18〉 참조).

71 「六十萬歲事件公判續報」, 《동아일보》, 1926년 11월 4일; 「六十萬歲事件 繼續公判」, 《동아일보》, 1926년 11월 5일.

72 「負傷 不計其數」, 《동아일보》, 1926년 6월 12일.

했다. 아래는 당시 배치된 학생들의 숫자이다.⁷⁶

〈돈화문 앞부터 황금정로 구간〉

서쪽: 공·사립 고등보통학교생 5,250명, 중학생 1,900명, 대학생 530명(계: 7,680명)

동쪽: 사립중등 정도 각종 학교 남학생 2,800명,⁷⁷ 실업학교 남학생 1,800명, 사범 학교 남학생 950명, 전문학교 및 同 수준의 학교 남학생 2,280명⁷⁸(계: 7,830명)⁷⁹

〈황금정 3정목부터 4정목 구간〉

북쪽: 초등 정도 각종 학교 150명, 보통학교 2,000명, 소학교 2,200명, 여자중등 정도 각종 학교 1,000명(계: 5,350명)

남쪽: 여자실업학교 200명, 여자고등보통학교 1,400명, 고등여학교 1,800명, 여자사범학교 100명, 여자전문학교 및 同 정도 학교 140명(계: 3,640명)

인산 행렬은 예정대로 6월 10일 오전 8시 돈화문을 출발했다. 8시 20분경⁸⁰ 순종의 시신을 실은 대여가 관수를 부근을 통과하고 행렬 후미에 있던 영친왕과의 친왕의 마차가 관수교를 지날 무렵, 행렬 동쪽에 도열하고 있던 연희전문학교 학생 약 50명이 격문 수만 매를 뿌리며 만세를 불렀다. 이때 현장에 있던 보성전문학교 학생들도 호응하여 함께 만세를 불렀다(1차 시위). 현장에서는 학생 30여 명이 체포됐다.⁸¹

76 「男女 學生의 整列」, 《시대일보》, 1926년 6월 9일; 「沿道の 兩側에 二萬學生 堵列」, 《동아일보》, 1926년 6월 10일.

77 《동아일보》에는 2,100명으로 보도.

78 《동아일보》에는 2,270명으로 보도.

79 《동아일보》와 《시대일보》 모두 함께 7,820명으로 보도하고 있으나 《동아일보》 보도상의 계산으로는 7,120명이 된다. 《시대일보》에서 나열한 숫자의 합계는 7,830명이다. 이에 비춰 보면 《동아일보》 보도보다는 《시대일보》의 수치가 더 정확하다고 판단된다.

80 만세 시위 전개시간은 일제 공식 보고서와 언론 보도마다 천차만별이라 특정하기가 어렵다. 기록에 드러난 시간과 물리적 거리 등을 감안하여 가장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시간으로 기록코자 했으나, 전혀 기록이 없는 장소의 경우 별도로 시간을 표시하지 않았다.

81 「国葬当日ニ於ケル動靜」(1926.6.10), 『故大勲位李王國葬書類 卷五止』; 「鐵桶가튼警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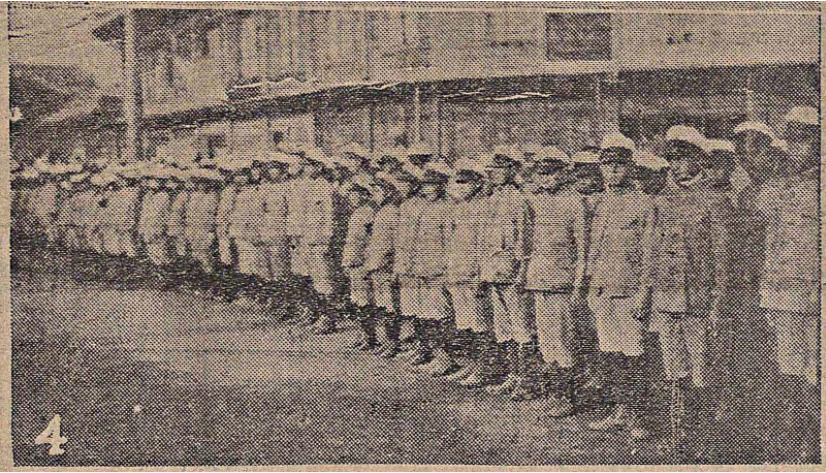


그림2-도열한 학생들⁸²



그림3-창덕궁 돈화문 앞에서 순종의 대여가 출발하는 모습⁸³

중에 沿道學生 萬歲高唱, 《시대일보》, 1926년 6월 11일; 「鐵甕城가튼 警戒網裡」, 《동아일보》, 1926년 6월 11일; 「六月十日 朝鮮OO萬歲」, 《동아일보》, 1926년 6월 12일; 경성지방법원, 「이선희 외 10인에 대한 판결문」, 1926.11.17; 「三十六年前의 6.10萬歲」, 《동아일보》, 1962년 6월 11일.

82 《매일신보》, 1926년 6월 11일.

83 『故大勲位李王葬儀写真帖』.

관수교 부근에서 시위가 일어나자 행렬의 후미가 지나가고 있던 장사동 247번지(혹은 8번지)에서도 세브란스의전 학생들이 격문을 살포하고 만세를 불렀다(2차 시위).⁸⁴

한편 종로 3정목(현 종로3가) 단성사와 동양루 앞에는 중앙고보 학생 약 30~40명⁸⁵이 도열하고 있었다. 때를 놓친 채 대여가 떠나버린 현장에 서 있던 학생들은 장사동 일대에서 소란이 일어나자 곧바로 행동에 돌입했다. 이선희가 이동환에게 눈짓으로 신호를 보낸 뒤, 대열 밖으로 뛰쳐나와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격문 1천여 장을 살포한 것이다. 이때 4학년 최제민과 유면희가 학생의 도열 앞에서 선전문과 격문을 살포하고 태극기를 휘날리며 만세를 외쳤다. 시위는 삽시간에 중앙고보 전교생으로 번져 나갔다(3차 시위).⁸⁶

이어 대여가 황금정 3정목 일대를 통과하자 연희전문 학생 200여 명이 격문을 살포하고 만세를 불렀는데 숙명여학교 학생들도 이에 동참했다. 이때 연희전문 학생 20여 명 외 경성제대 학생 두 명이 현장에서 체포됐다(4차 시위).

9시경 경성사범학교 앞에서 중앙기독교청년회관 학생 박두종과 신원 미상의 청년 두 명이 격문 1천여 장을 살포하며 만세를 고창했다(5차 시위).⁸⁷ 현장에서 연희전문 학생 외 다수 인원이 함께 붙잡혔는데, 몇 명은 품속에 격문과 깃발을 품고 있었다.⁸⁸

9시 10분경 대여가 훈련원에 마련된 봉결식장에 들어서려던 차, 누군가 만세를 부르며 격문을 살포하여 혼란이 일어나고 수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6차 시위).⁸⁹

84 「鐵桶가튼警戒中에 沿道學生 萬歲高唱」, 《시대일보》, 1926년 6월 11일; 「鐵甕城가튼警戒網裡」, 《동아일보》, 1926년 6월 11일.

85 시위 직후 조선총독부 경무국장이 내각서기관장에게 보낸 전보에서는 중앙고보 학생의 수가 20명으로 기록돼 있다. 「国葬当日ニ於ケル動靜」(1926. 6. 10), 『故大勲位李王國葬書類 卷五止』.

86 「鐵桶가튼警戒中에 沿道學生 萬歲高唱」, 《시대일보》, 1926년 6월 11일; 「鐵甕城가튼警戒網裡」, 《동아일보》, 1926년 6월 11일; 「六月十日 朝鮮〇〇萬歲」, 《동아일보》, 1926년 6월 12일; 경성지방법원, 「이선희 외 10인에 대한 판결문」, 1926. 11. 17; 「三十六年前의 6. 10萬歲」, 《동아일보》, 1962년 6월 11일; 六十同志會, 앞의 책(1980), 39-45쪽.

87 「六月十日 朝鮮〇〇萬歲」, 《동아일보》, 1926년 6월 12일; 「朝鮮〇〇萬歲事件續報」, 《조선일보》, 1926년 6월 12일.

88 「鐵桶가튼警戒中에 沿道學生 萬歲高唱」, 《시대일보》, 1926년 6월 11일.

89 「混雜にまぎれて學生頻に騒ぐ」「それ爆彈」, 《神戸新聞》, 1926년 6월 11일.

10시경 1차 시위가 있었던 단성사 부근에서 격문 살포 및 만세 시위가 있어 서대문경찰서 경찰이 총출동, 즉점정 방면과 평동에서 연희전문 학생 16명을 검거했다(7차 시위).⁹⁰ 이상 오전에만 종로와 황금정, 동대문 일대에서 7차에 걸친 시위가 있었다.

봉결식을 마치고 오후가 되어 순종의 시신을 실은 대여가 장지를 향해 출발하려 할 때 훈련원 재전(齋殿) 부근에서 학생 한 명이 태극기를 휘두르며 만세를 불렀다(8차 시위).⁹¹

오후 12시 35분경 대여가 오간수교를 통과할 때, 동양선교회 성서학원 소속 학생 천세봉이 다리 밑 군중 속에서 바탕에 십(十)자 모양을 새기고 붉은 글씨로 ‘근화신국(槿花神國) 만세’라고 쓴 깃발을 흔들며 만세를 불렀다(9차 시위). 이때 천세봉이 만세를 부르면서 부근에 있던 군중 사이에서도 커다란 소동이 일어났다.⁹²

12시 45분경 대여가 동대문 부근에 이르자 동대문 밖 동대문부인병원 내의 진찰실 앞에서 조선학생과학연구회 집행위원이었던 연희전문 1학년 홍명식 외 두 명이 만세를 부르고 격문 70여 장을 살포하다 종로경찰서 순사에 의해 체포됐다(10차 시위).⁹³

90 「延專生十餘名을 西門署에서 檢舉取調」, 《조선일보》, 1926년 6월 12일.

91 「六月十日 朝鮮○○萬歲」, 《동아일보》, 1926년 6월 12일; 「繼續的 突發 真相」, 《시대일보》, 1926년 6월 12일.

92 천세봉의 경우 국장 당일 오전 7시경 성서학원 학생 30명을 모아 놓고 “만세를 부르려 하니 원조해달라”고 했으나, 아무도 찬동하는 이가 없고 오히려 “종교인은 정치에 관여해서 안 된다”는 충고만 듣고 부득이하게 홀로 거사했다. 다만 그는 피체된 후 예수교(기독교) 포교 및 순종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한 차원에서 만세를 부른 것이라며, 자신의 거사가 어디까지나 종교적 차원의 행동이었음을 강조했으나 당시 천세봉을 신문한 동대문경찰서의 도순사 島田與一은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된다는 계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국장에 즈음하여 대여가 통과할 때에 그곳을 거닐하여 만세를 고창하고 기를 내어 흔드는 등으로 보아 불온사상에서 나온 것이라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萬歲高唱ニ關スル件」(1926.6.11), 『大正十五年 第一・二次朝鮮共產黨事件檢舉ニ關スル報告綴』, 경성지방법원 검사국; 동대문경찰서, 「천세봉 신문조서」, 1926.6.11; 동대문경찰서, 「김영수 보고서」, 1926.6.17; 동대문경찰서, 「증인 김영수 신문조서」, 1926.6.18; 동대문경찰서, 「천세봉 신문조서(제2회)」, 1926.6.18; 동대문경찰서, 「의견서」, 1926.6.18; 동대문경찰서, 「증인 前野與八 신문조서」, 1926.6.22; 경성지방법원, 「천세봉 판결문」, 1926.7.7.

93 「萬歲高唱ニ關スル件」(1926.6.11), 『大正十五年 第一・二次朝鮮共產黨事件檢舉ニ關スル報告綴』, 경성지방법원 검사국.

1시 25분경 대여가 창신동 채석장 입구를 지날 때는 경북 의성 출신의 농부 홍종현이 손가락을 꿰은 뒤 그 피로써 태극기에 혈서를 쓰고서 만세를 불렀다. 홍종현은 경계 중이던 순사에 의해 체포되어 끌려가는 자동차 안에서도 만세를 불렀다(11차 시위).⁹⁴

1시 45분경 대여가 신설리 서울고무공사 앞을 지나갈 때 《시대일보》 배달부 김낙환이 동대문부인병원 내에서 살포된 것과 동일한 격문을 살포하며 만세를 불렀다(12차 시위).⁹⁵

마지막으로 2시 20분경 송인동 동묘 부근에서 통동계 학생 김재문과 황정환이 약 300장의 격문을 살포하며 만세를 부르는 것으로 이날 서울에서의 만세 시위는 막을 내렸다(13차 시위).⁹⁶

이날 만세운동이 벌어지자 소관 경찰서인 종로서에서는 무장한 정복순사와 사복형사대를 출동시켜, 각종 인쇄물을 압수하고 각 학교 학생, 청년 등을 잡아

94 홍종현은 이미 1919년 3·1혁명에 참여해 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었다. 순종의 국장 당시에 도 경성에 다수의 민중이 모여드는 것을 기회로 만세 시위를 전개코자 6월 8일 상경했다. 그는 은신처에서 태극기를 만든 뒤 “대한독립만세! 우리 동포여, 우리는 자유를 위해 피를 흘리며 싸우자”라는 내용으로 혈서를 썼다. 「萬歲高唱=關スル件」(1926.6.11), 『大正十五年 第一・二次朝鮮共產黨事件檢學=關スル報告綴』, 경성지방법원 검사국; 「繼續的 突發眞相」, 《시대일보》, 1926년 6월 12일; 「己未에도 鐵窓 初志를 不變」, 《동아일보》, 1926년 6월 26일; 경성지방법원, 「홍종현 판결문」, 1926.6.28.

95 「萬歲高唱=關スル件」(1926.6.11), 『大正十五年 第一・二次朝鮮共產黨事件檢學=關スル報告綴』, 경성지방법원 검사국; 사건 직후 보도에 따르면 한 명이 만세를 불렀다고도 하고, 여러 명이 적기(赤旗)를 휘두르며 만세를 불렀다고도 하는 등 제각각이다. 살포한 격문의 수도 100매, 500매, 1,000매 등으로 심하게 차이가 난다. 「鐵桶가튼 警戒中에 沿道學生 萬歲高唱」, 《시대일보》, 1926년 6월 11일; 「學生○○事件續報」, 「繼續的 突發眞相」, 《시대일보》, 1926년 6월 12일; 「六月十日 朝鮮○○萬歲」, 《동아일보》, 1926년 6월 12일.

96 공판 당시 김재문은 600장이라고 진술했으나, 황정환은 200여 장을 살포했다고 진술했다. 《시대일보》에서는 700여 장을 살포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이들은 체포된 동대문경찰서에서는 약 300장을 살포했고, 체포 당시에도 700여 장을 소지하고 있어 압수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萬歲高唱=關スル件」(1926.6.11), 『大正十五年 第一・二次朝鮮共產黨事件檢學=關スル報告綴』, 경성지방법원 검사국; 「繼續的 突發眞相」, 《시대일보》, 1926년 6월 12일; 「悲雲重疊한 國葬日에 一部學生의 萬歲騷動」, 《매일신보》, 1926년 6월 12일; 「六十萬歲事件公判續報」, 《동아일보》, 1926년 11월 4일; 「六十萬歲事件 繼續公判」, 《동아일보》, 1926년 11월 5일; 경성지방법원, 「이선희 외 10인에 대한 판결문」, 1926.11.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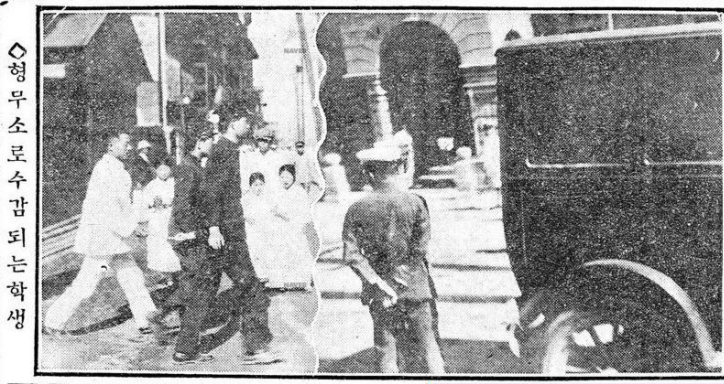


그림4-형무소로 수감되는 학생⁹⁷

들었다. 현장에서 체포된 인원은 기록마다 제각각이라 정확한 수치를 파악할 수 없지만, 적게는 100명에서 많게는 2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⁹⁸

VI. 맺음말

본고에서는 기존 선행 연구의 비교 검토, 추가적인 사료 검토 등을 토대로 서울 지역 6·10만세운동의 전개 과정에 대한 재구성을 시도했다. 그 결과 아래와 같이 13차에 걸친 시위가 일어난 것으로 정리했다(괄호 안은 시위 참여자).

1. 관수교 (연희전문·보성전문)
2. 장사동 247번지 혹은 8번지 (세브란스의전)
3. 단성사(동양루) 앞 (중앙고보)
4. 황금정 3정목 (연희전문·숙명여학교)
5. 경성사범학교 (중앙기독교청년회관 등)
6. 훈련원 부근 (미상)

97 《동아일보》, 1926년 6월 16일.

98 「各署連落으로 八方에서 檢學」, 《동아일보》, 1926년 6월 11일.

7. 단성사 부근 (연희전문)
8. 훈련원 재전 부근 (미상)
9. 오간수교 (천세봉)
10. 동대문부인병원 (홍명식 등)
11. 창신동 채석장 (홍종현)
12. 신설리 서울고무공사 앞 (김낙환)
13. 동묘 부근 (김재문·황정환)

특히 정세현을 제외한 다른 선행 연구들은 단성사 앞 시위를 1차 시위로 판단해 왔으나, 본고에서는 일제 보고서를 토대로 1차 시위가 일어난 장소를 관수교 부근으로 보았다. 이는 6·10만세운동의 최초 시작지점을 바로 잡는 문제이기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 제기라고 생각된다.

이상 정리된 시위만 보더라도 6·10만세운동은 일제가 말한 것처럼 가벼운 해프닝 수준은 결코 아니었다. 그러나 일제 입장에서는 3·1혁명 이후 나름대로 유효화정책을 전개하고 있던 총독부 당국에 또다시 통치의 실패를 선고하는 셈이었기에 이를 어떻게든 감추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3·1혁명 당시처럼 거족적인 민족운동으로 발전하지는 못했다는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일제 군경의 엄중한 경계 속에서도 끝끝내 굴하지 않고 일어선 이들이 있었다는 점에서 6·10만세운동의 역사적 의의는 결코 작지 않다고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최대한 정치하게 사료를 재검토하고 6·10만세운동의 전개 과정을 재구성하고자 했으나 사료의 한계로 명확하게 결론을 내리지 못한 점도 있다. 첫째, 돈화문 앞 보성전문 및 보성고보 학생들의 시위 유무다. 둘째, 단성사 앞 연희전문, 세브란스의전, 보성전문, 배재고보 학생들의 시위 유무다. 셋째, 채석장 부근 유생 오치림의 만세 시위 유무다. 이들 모두 교차 검증이 불가해 사실 여부를 판단할 수 없었다. 이뿐만 아니라 이천진이 시위를 전개한 장소나 서울 지역 만세 시위가 전개된 시간대, 만세 현장 체포 인원 숫자 등도 특정할 수 없었다. 이 외에 여러 장소에서 산발적인 시위(미수 포함)가 있었을 것으로 짐작되지만 필자의 능력 부족으로 모두 밝혀낼 수는 없었다.

이처럼 6·10만세운동 100주년을 맞이했지만 여전히 만세 시위의 전개 과정조

차 명확히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본고는 이에 대한 문제 제기 차원에서 쓰인 글이며, 차후 본고의 한계를 넘어 6·10만세운동의 전모를 밝혀내는 후속 연구들이 이어지길 고대한다.

참고문헌

1. 1차 자료

- 《경성일보》, 《독립신보》, 《동아일보》, 《매일신보》, 《서울신문》, 《시대일보》, 《신인간》, 《조선일보》, 《고베신문(神戸新聞)》.
- 『故大勳位李王國葬書類 卷二』.
- 『故大勳位李王國葬書類 卷五止』.
-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ノ部: 李王薨去ト鮮人』.
- 경성지방법원 검사국, 『大正十五年 第一・二次朝鮮共產黨事件檢學ニ關スル報告綴』.
- 경성지방법원 형사부, 『第一次・第二次朝鮮共產黨事件判決』.
- 경성지방법원, 「홍중헌 판결문」, 1926.6.28.
- 경성지방법원, 「천세봉 판결문」, 1926.7.7.
- 동대문경찰서, 「천세봉 신문조서」, 1926.6.11.
- 동대문경찰서, 「김영수 보고서」, 1926.6.17.
- 동대문경찰서, 「의견서」, 1926.6.18.
- 동대문경찰서, 「증인 김영수 신문조서」, 1926.6.18.
- 동대문경찰서, 「천세봉 신문조서(제2회)」, 1926.6.18.
- 동대문경찰서, 「증인 前野與八 신문조서」, 1926.6.22.
- 六十同志會, 『六十萬歲肯綮』, 서울: 명진사, 1980.
- 阿部黨, 『朝鮮問題論集』, 부산: 민족문화, 1986.

2. 논저

- 김호일, 「日帝下 '6·10學生運動' 考」, 『尹炳奭教授華甲紀念 韓國近代史論叢』, 서울: 지식산업사, 1990.
- 박현, 「6·10만세운동을 통해 본 경성의 시위 공간 분석」, 『한국독립운동사연구』 94, 2026, 99~144쪽.
- 이현희, 「6·10 獨立萬歲運動放」, 『6·10독립만세운동: 제65주년 기념 자료집』, 6·10만세기념사업회, 1991.
- 장석홍, 『6·10만세운동』, 천안: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 정세현, 「6·10萬歲運動」, 『韓國近代史論 II』, 서울: 지식산업사, 1979.
- 최은진, 「순종 사망과 장례과정: 1926년 4월부터 6·10만세운동까지」, 『한국독립운동사연구』 87, 2024, 179~214쪽.
- 최은진, 「6.10만세운동 관련 경찰조사와 재판과정」, 『한국근현대사연구』 115, 2025, 177~208쪽.

황묘희, 「6·10 獨立萬世運動의 展開와 그에 나타난 民族主義 精神研究」, 『한국민족운동사연구』 9, 1994, 105~171쪽.

황묘희, 「6·10萬歲運動의 民族史的 位相」, 『한국민족운동사연구』 14, 1996, 21~63쪽.

References

1. Primary Sources

Keijō Nikkō, Dongnip Sinbo, Dong-A Ilbo, Macil Sinbo, Seoul Shinmun, Sidae Ilbo, Sin-In'gan, Chosun Ilbo, Kobe Shimbun.

Yuksip Dongjihoe, *Key Issues of the June Tenth Independence Movement*, Seoul: Myeongjinsa, 1980.

"Documents on the State Funeral of the Late Grand Order Prince Yi, Vol. 2".

"Documents on the State Funeral of the Late Grand Order Prince Yi, Vol. 5".

"Miscellaneous Files Concerning Rebellious Groups: Koreans' Section-The Demise of Prince Yi and Koreans".

Abe, Kaoru, *Collected Essays on the Korean Question*, Busan: Minzokubunhwa, 1986.

Public Prosecutor's Office of Keijō District Court, "Report Dossier on the Arrests in the First and Second Communist Party of Korea Incidents in 1926".

Criminal Division of Keijō District Court, "Judgments on the First and Second Communist Party of Korea Incidents".

Keijō District Court, "Judgment on Hong Jong-hyeon", June 28, 1926.

Keijō District Court, "Judgment on Chon Se-bong", July 7, 1926.

Dongdaemun Police Station, "Interrogation Protocol of Chon Se-bong", June 11, 1926.

Dongdaemun Police Station, "Report on Kim Yeong-su", June 17, 1926.

Dongdaemun Police Station, "Interrogation Protocol of Witness Kim Yeong-su", June 18, 1926.

Dongdaemun Police Station, "Interrogation Protocol of Chon Se-bong (2nd Session)", June 18, 1926.

Dongdaemun Police Station, "Opinion Report", June 18, 1926.

Dongdaemun Police Station, "Interrogation Protocol of Witness 前野與八", June 22, 1926.

2. Books and Journal Articles

Choi, Eunjin, "The Death and Funeral Process of Emperor Sunjong: From April 1926 to the June 10th Independence Movement," *The Journal of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Studies*, Vol. 87, 2024, pp. 179-214.

Choi, Eunjin, "Police Investigation and Trial Process Related to the June 10th Independence Movement," *Journal of Korean Modern and Contemporary History*, Vol. 115, 2025, pp. 177-208.

Chung, Sehyun, "The June 10th Independence Movement," *Essays on Modern History of Korea II*, Seoul: Jisik Sanup Publications, 1979.

Hwang, Myohee, "A Study on the Development and Nationalist Spirit of the June 10th Independence Movement," *Journal of the History of Korean National Movement*, Vol. 9, 1994, pp. 105-171.

Hwang, Myohee, "The Historical Significance of the June 10th Independence Movement in Korean History," *Journal of the History of Korean National Movement*, Vol. 14, 1996, pp. 21-63.

Jang, Seokheung, *6-10 Independence Movement*, Cheonan: Institute of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Studies, Independence Hall of Korea, 2009.

Kim, Hoil, "A Study on the '6-10 Student Movement' under Japanese Colonial Rule," *Essays on Modern History of Korea in Honor of the 60th Birthday of Professor Yun Byung-suk*, Seoul: Jisik Sanup Publications, 1990.

Lee, Hyunhee, "A Study on the June 10th Independence Movement," *Proceedings for the 65th Anniversary of the June 10th Independence Movement*, June 10th Independence Movement Commemorative Society, 1991.

Park, Hyun, "An Analysis of Demonstration Spaces in Keijo (Seoul) through the June 10th Independence Movement," *The Journal of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Studies*, Vol. 94, 2026, pp. 99-144.

Table

Table 1. Lee Hyun-hee (1969)

Table 2. Chung Se-hyun (1979)

Table 3. Kim Ho-il (1990)

Table 4. Hwang Myo-hee (1994-1996)

Table 5. Jang Seok-heung (2009)

Table 6. Choi Eun-jin (2024)

Table 7. Park Hyun (2026)

Table 8. Comparison of the Development Process of Prior Research

Table 9. Key Issues Derived from the Comparison of Previous Studies

Table 10. Report Sent by the Chief of Dongdaemun Police Station to the Chief Prosecutor of Keijō District Court (June 11, 1926)

Table 11. Report of the Director-General of the Police Affairs Bureau,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June 19, 1926)

Table 12. Dong-A Ilbo (June 11, 1926)

Table 13. Dong-A Ilbo, Chosun Ilbo, Sidae Ilbo, Maeil Sinbo, and Keijō Nikkō (Announcement by the Police Affairs Bureau of the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June 12, 1926)

Table 14. Keijō Nikkō (June 11, 1926)

Table 15. Sidae Ilbo (June 11, 1926)

Table 16. Sidae Ilbo (June 12, 1926)

Table 17. Kobe Shimbun (June 10–11, 1926)

Table 18. Memoir of Lee Dong-hwan (1980)

Figure

Figure 1. Illustration Depicting the Route of the Funeral Procession

Figure 2. Photograph of Students Lined Up along the Route

Figure 3. Departure of Emperor Sunjong's Remains in Front of Donhwamun Gate of Chang-deokgung Palace

Figure 4. Photograph of Students Being Escorted to Prison